



生産의 한

己未年の 새해가 밝았습니다.

跆拳道는 確固한 盤石 위에 基礎가 잡히고 安定이 되어 飛躍의 段階로 突入했읍니다.

昨年 한 해 동안 온갖 難關과 試鍊을 이겨내면서 發奮刻苦해 준 여러 跆拳道人과 跆拳道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衷心으로 感謝하는 바 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랜 宿願이던 館統合을 이룩하고 이에 따른 內部的인 諸般體制의 整備를 거의 마무리짓게 된 것은 宗主國으로서의 決意와 團結을 顯示해 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6月엔 準世界大會級이라 할 「프레일드게임」을 開催하여 19個國에서 3百名의 任員選手와 美·英·日·加·香·伊 등 各國의 스포츠 指導者들이 參加하므로써 盛況을 이루었읍니다. 더욱이 平壤世界卓球로 해서 關心의 焦點이 되고있는 國際卓球聯盟의 에반스會長과 부르크스事務總長을 本人의 이름으로 特別招請하므로써 跆拳道가 國際外交의 一翼을 擔當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읍니다.

9月엔 香港에서 第3回 亞細亞跆拳道選手權大會를 盛況裡에 끝내면서 韓國이 三連覇를 이룩했으며 汎美聯盟의 創設에 이은 첫 팬앰大會를 멕시코에서 그리고 유고, 폴란드의 共產國家가 參加한 가운데 第2回 유럽跆拳道選手權大會를 독일에서 여는 등 國際的 行事에도 豐盛한 收穫을 거두었읍니다.

그러나 跆拳道는 아직 國際的으로 더 많은 것을 生産할 수 있는 素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특히 今年은 對內 外的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跆拳道人의 智慧와 團合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世界의 跆拳道로 發展, 定立시켜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跆拳道를 통한 스포츠 外交를 強力히 推進하므로써 國威宣揚의 使命을 다짐해야겠읍니다.

이를 위해 本人은 國家間의 跆拳道 親善競技交流와 技術情報交換, 大陸聯盟의 增

해 가 되 기 를

世界跆拳道聯盟 總裁 金 雲 龍
大韓跆拳道協會 會長

設과 共產圈의 地域聯盟 加入, 國際會合을 통한 啓蒙活動등을 目標로 삼을 것 입니
다.

今年 10월엔 第4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가 독일에서 열리게 되어 우리 跆拳道
의 世界化에 拍車를 加하게 될 것이며 4월에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大陸選手權
大會가 開催되어 아시아, 유럽, 北美, 中南美, 中東에 이어 여섯 번 째 大陸聯盟이
創設될 것입니다.

또한 跆拳道의 普遍化를 促進하기 위해 女子部, 學生部, 少年少女部の 世界大會
를 開催할 것도 檢討할 것이며 태권도 월드컵의 創設도 構想中에 있습니다.

이같은 모든 計劃은 여러 跆拳道人의 自發的인 參與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탐스럽다해도 香氣가 없다면, 이는 한낱 造花에 지나지 않
은 것처럼 모든 設計圖도 實踐에 옮겨지지 않을 때, 이는 한장의 종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本人이 各別히 跆拳道人들에게 強調하고 싶은 것은 行動에 앞서 말부터 내세우
는 風土는 止揚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열 마디의 意見보다는 한 가지의 實踐이 훨씬
生産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우리 跆拳道人은 모두가 舊態依然한 姿勢에서 脫皮하여 斬新
한 決意와 굳은 使命感으로 跆拳道를 「生産的 스포츠」로 가꾸어 나가도록 마음 속
깊이 다짐 합니다.

1978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The 1978 General Meeting of National Delegates.



○ 대한 태권도협회 1978년도 대의원총회가 78년 12월 28일 대한체육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한 해 동안 태권도가 쌓은 업적을 반성하고, 79년 새해를 향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서 백여명의 태권도인들이 방청석을 메우고 주시하는 가운데, 열 여섯 명의 대의원들이 진지하고 열띤 토론으로 태권도 백년대계를 위한 설계에 집중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류 병 관(경 기)	고 봉 준(강 원)	김 용(충 북)	박 창 락(충 남)
최 규 열(경 북)	허 용(전 북)	문 현 상(전 남)	정 병 규(부 산)
고 익 조(계 주)	홍 중 수(서 울)	이 금 홍(중 앙)	이 남 석(중 앙)
이 승 완(중 앙)	주 상 일(국교연맹)	노 상 석(중고연맹)	정 찬 모(대학연맹)

김문용 회장을 의장으로 진행된 회의에 강원식 전무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이계광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1978년 12월 28일 오전 11시에 대한체육회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는 각 산하 단체에서 1명씩 참석, 경남의 공경찬대원이 불참한 가운데 16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강원식 전무이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에 이은 개회사에서 김운용회장은 「개인이든 단체든 자신의 원 위치를 검토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반성하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나아가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모티브입니다. 이에 태권도의 일면을 반성하고 새로운 태권도의 청사진을 펼쳐는 대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시정되어야 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지요. 그동안 태권도는 국기로서 승화되는 것과 더불어 국제적인 스포츠라는 바탕에서, 대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대내적으로 국력을 뒷받침하는 힘의 원동력으로 컸습니다. 역사적으로 구분해 볼 때 71년부터 73년까지는 국기원을 설립하고 태권도가 국기로서 인정받으며 공식적인 체계를 확립하여 그 판도를 넓혔고, 73년부터 75년까지도 세계연맹의 창설을 주춧돌로 세계적인 스포츠로 육성했으며, 75년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고 지금까지는 국제무대의 현대적 스포츠로 부단없는 확대화의 작업을 해온 것 같습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계속적인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모든 태권도인들의 과제는, 80년대에 펼쳐질 스포츠의 국제무대에서 올림픽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지 말아야 할 것과 국제연맹속에서의 확실한 세계태권도연맹으로 그 자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세계연맹이 각 지역연맹을 결성하여 2차단위로 태권도 보급을 확대시키고,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 들어가며 태권도를 무도 스포츠로 승화시키는데 태권도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다짐을 주었다.

그리고 「신년에 있을 제 4회 세계태권도대회를 대비하여 완벽한 준비를 해야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리·보완해야 할 문제나 체제, 그리고 도장, 시설강습소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은 태권도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시고 좀더 자유스럽고 진지한 분위기로 건설적인 의견을 기탁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이며 개회사를 장식했다.

이어 전년도 회의록 낭독이 강원식 전무이사의 의해 낭독되었다. 이 낭독순서에서 작년도에 제시되었던 의결건건의 사항들과 그에 따라 해결보완된 현재의 실적이 나타났는데, 승품심사인원에 대한 건은 중앙승품심사를 월 2회의 정기 승품심사대회로 계획을 세워 시정되고, 실질적



개회사를 하는 김운용회장

으로 유동성있게 집행되고 있음을 표명했고, 교육위원회인가 문제와, 계간 태권도지 각 시도지부에 무상 배부의 건은 김운용회장 노고의 댓가로 서울의 경우 중구 종로지역을 제외한 건역에 걸쳐 양성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자체 도장을 정비 강화하여 태권도장의 면모를 세련하여 무인가도장의 오명을 씻어낼 것으로 표명, 계간 태권도지는 각 시도지부에 5부씩 무상으로 송부함으로 시정조치 되었음이 나타났다.

또한 전년도에 있었던 태권도 어린이 성장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필요성 강구 건의에 대해서는 각계 저명인사 초청좌담회 형식기사로 1978년 10월 15일 주간한국 지상에 태권도의 이로운 점을 공개화했고 앞으로 더욱 연구개발할 것을 확실하는 것으로 답문을 대신했다.

이어 이계광감사의 1978년도 감사보고에서 각 계별별 항목별로 세세히 검토한 결과 협의의

제정이 올바른 체제로 잘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부문에선 전년에 비해 60,829,000원이 증가되었고 수입부문에 대한 비율로서는 보조금이 전체수입의 13.1%, 찬조금이 16.8%, 자체수입이 43.1%. 또한 각 부문의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단 몇가지의 지적사항으로는 태권도지 발행에 있어 40부에 대한 8000원이 이중으로 계산된 점, 대회상해보상금 이월현상에 작은 상해일지라도 대회상해보상금으로 처리할 것 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제광 감사의 감사보고에 의하면 대회에 참가한 인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사에 응심하는 인원수도 증가되었고, 태권도 시범의 수도 작년보다 횟수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파견이 의외로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좀 더 활발한 태권도의 내실화를 다짐했다. 제3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때 무리를 하면서도 적극 재정면에 창조해 준 김운용회장에 대한 감사말을 끝으로 감사보고를 끝맺었다.

1978년도 결산보고

총수입 : 151, 207, 673원

총지출 : 151, 207, 673원



전년도 회의록을 낭독하는 강원식사무이사



감사보고를 하는 이제광감사

1979년도 수지에산

총수입 : 150, 441, 790원

총지출 : 150, 441, 790원

이어서 제1회의안건으로 「1978년도 사업보고 승인의 건」과 제2안건인 「1978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에서 국민학교 연맹 주상일 대의원이 감사결과에 의의가 없으므로 보고서를 대신해 통과할 것을 제의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한 제3회의안건인 「1979년동 사업계획 승인의 건」과 제4안건인 「1979년도 수지에산 심의의 건」에 있어서는, 대학연맹의 정찬모 의원이 유인물에 게재된 지출예산에 연구부문이 전혀 없는 것을 지적하고, 태권도의 정의, 이념, 정립, 장기발전상, 태권도 용기구의 개선등 연구해야할 과제가 많으므로 예비비에 할당된 200여만원 중 연구비에 특별한 배려가 요망된다고 제의했다.

이에 김운용 의장은 예비비 200만원 전액을 연구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아 정찬모 대의원의 동의를 받고 전원 찬성으로 예비비를 연구비로 돌리기로 결정 되었다. 이상 사업계획에 의의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은 무수정 통과 되었다.

이어서 기타사항에 들어가 건복의 허용 대의원이 감사절차에 있어, 금전의 수입지출 뿐만 아니라 전차총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실행의 여부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져, 김운용 의장에 의해 연구 승단비문제의 균형과, 정책에 따른 충실한 이행, 지속적인 개선의 계획으로 답변되었다.

그리고 경상북도 최규열 의원이 단증발급에 있어,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국내단증은 초단부터 4단까지 지역심사를 하고 관인으로 발행케 하여 빠른 시일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의 새로운 기구가 필요함을 요망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의 답변으로 의장은 단증은 태권도 중주국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므로 올바른 처리과정을 밟고 발급되는 것이 좋고, 다만 지금의 체제에서 행정적인 강구책으로 품중에 한하여는 관인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학교연맹 주상일 대의원은 기술심의회에 연구분과위원회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위원회 구성에서 무력단을 논할 것이 아니고, 교수나 교사진을 초빙해, 실질적으로 각 분야를 정립 강화하는 연구의 시급함, 그리고 상벌분과 위원회 강화, 협회 및 국기원의 행정력 강화로 태권도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향상, 협회장 장학금 국민교생에게도 지급을 요망하는 의견은 앞으로의 참고사항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경북의 최규열 대의원이 건의한 협회 단증 발행에 있어서의 지역심사집행문제는 건의

가 아닌 결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경기도의 유병관 대의원이 제의를 했다. 그 내용은 4단 이하의 심사집행은 각시도협회에 위임하고 중앙에서 시도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제도, 승단 심사비 배당을 예로들어, 일선도장 40% 시도지부 20% 중앙 40%로 개선, 관이 해체된 이상 관에 소속되어 있던 유능한 인물들을 유급으로 채용할 것인데 주상일 의원의 제청을 받고 허용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회의가 끝난 후 결의안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건의는 결국 지역승단심사집행을 각시도지부에 위임하는 결의안과 심사비배당문제는 사무처에 일임하도록 할 것으로 수정동의 되었다. 이 문제로 5분간 회의가 정회되었고 5분동안의 정회 시간동안 대의원들의 검토결정이 있었다.

이여 몇 가지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허용의원 이관 해체 후 관장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말했다고, 전남의 문현상 의원은 태권도와 타무도와의 본질적인 차이, 우월성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연구비를 유용할 것을 다짐케 했다.

이에 김운용 의장은 세계에 태권도를 가장 우월한 무도 스포츠로 부각시키는데는 모든 태권도인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필연성이 따른다고 말하며, 지도자의 자질향상, 즉 지도자 정신자세 고조와 차원높은 국가적 사명 의식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국기 태권도를 보호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서로 협심하여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



중앙 이남석대의원



경북 최규열대의원



전북 허용대의원



전남 문현상의원

하는 미덕도 길러야겠다고 했다.

다시 전북의 허 용 의원의 건의가 들어왔다. 시도지부의 건의안이라는 전제가 붙은 이 건의는 첫째, 대학부 전체가 참가할 전국체전의 대학부 신설 요망, 두번째 전문학교 대학교에 태권도 보급추진, 세번째 인준심사를 재실시하여 구체적인 연구방안 모색, 이에따른 엄격한 사전 심사 필요, 네째 경기규정과 심판규정의 미비점 보완 다섯째 공문에 대한 공신력을 갖도록 요청, 여섯째 선수등록의 행정적인 획일화 등이다.

그리고 노상석 대의원은 자급학교연맹 대회 협회의 특별보조의 요망을 건의했다.

이상의 내용으로 펼쳐진 1978년도의 대의원정기총회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문제는 국기태권도의 내실화를 다지는 연구의 필요성, 단증발급의 경제적 능률적인 행정조치 시급, 시도

지부의 심사집행 심사비 조정, 관통합 이후의 처우개선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앞으로 79년 태권도가 나아갈 사업계획으로는 서독에서 개최될 제 4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중주국다운 면모를 유지 과시할 기술계발과 자체내의 정비가 하나의 과제이며, 정신적인 면으로도 세계를 압도할 우의성을 갖어야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겠다.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 한국의 정신과 기예를 보급하는데 우선 태권도인 스스로 다짐하는 사명감과 정신자세의 고조가 각별히 요망되는 것이다.

앞으로 하나하나 태권도가 갖고있는 문제점과 미비한 사항들을 해결 보완해 내실화를 기하고 80년대에 올림픽광장을 향하여 끝없이 전진노력할 것을 모두 약속해야 하겠다.



제주 고익조 대의원



중앙 이금홍 대의원



대학연맹 정찬도 대의원



국교연맹 주상일 대의원



경기 유병관 대의원

第三回 全國大學對抗 跆拳道選手權大會

第三回 全國 大學 對抗 跆拳道 選手權大會가 78年 11月 9日 張忠植 會長을 비롯한 內外 귀빈 이 參席한 가운데 國技院에서 開催되었다.

오전 10時 開會式에서 國민의례와 전년도 우승 팀인 明知大學의 우승기 반환에 이어 張忠植 大會長은 全國大學 跆拳道 選手에게 跆拳道發展을 위해 跆拳道의 理論과 實際에 대한 科學的 研究를 당부하고 또 태권도 경기기술의 발전을 위해 努力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選手 代表의 선서에 이어 곧 경기가 시작되었으며 全國 16個 大學에서 많은 選手들이 참여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특히 경기대학, 서울산업대학, 경기공전등 신설팀들이 參與함으로써 大會에 活力을 불어 넣었다.

大會가 進行되는 동안 예상외의 結果가 속출하였는데 단국대학교, 대한유도학교의 초발 탈락과 서울大學校, 광주실업전문학교의 준결승진출(3위 입상)등이 그 예이다. 또 1,2回 大會에 우승하여 三連勝을 노리던 明知大學이 韓國體育大學에 패하여 우승기를 넘겨 주었다.

이러한 結果는 어느 팀이라도 放心하여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教訓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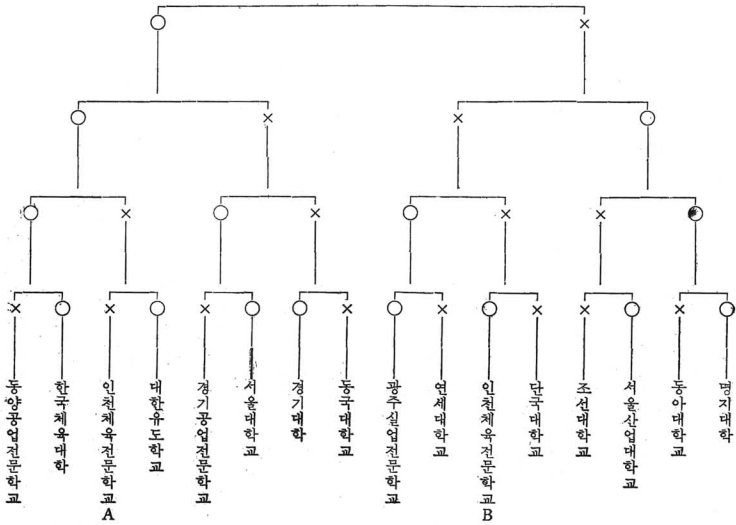
앞으로 많은 大學 팀들이 大會에 參加하므로서 大學聯盟의 경기가 活發해지고 모든 大學跆拳道人이 大學연맹의 事業에 적극 參與하여 跆拳道 發展에 이바지하길 빈다.

大會에 參加한 選手名單과 그 戰績은 다음과 같다.

참가대학선수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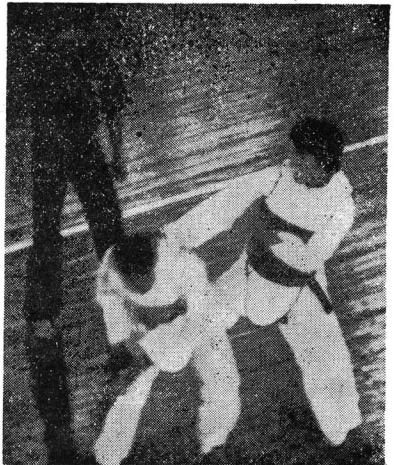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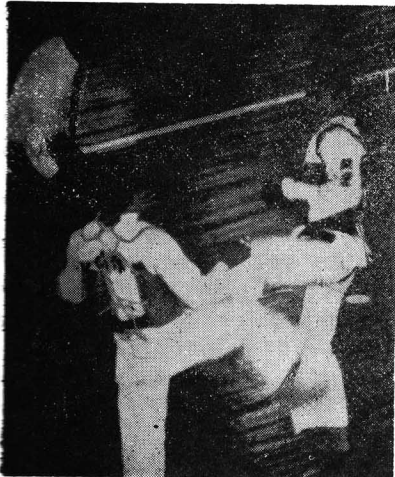
대학명	감독	선수	수
서울대	노희덕	김경섭	고상욱
단국대	김상배	김광원	민영기
유도학교	박순진	김형주	이동수
연세대	고홍환	송기영	오두환
경기대	김용권	이창현	김완용
광주실업	김우재	이용우	윤영일
동양공전	김계홍	김원창	박동식
인천체전A	김호재	이병두	조병휘
인천체전B	김도재	이귀식	정재설
명지대	정행도	차석현	이태희
산업대	김은환	어상우	김진택
경기공전	문종만	이호철	박찬하
동국대	박동기	김용식	김은호
동아대	이형진	박인덕	김재혁
한국체대	현우영	김종기	차상혁
조선대	김서주	김진갑	최귀억
		박상길	김영철
		이낙휘	신국찬
		정기수	양인석
		차중복	전경석
		박종문	이문진
		김창성	김승철
		이행주	차영식
		박철	양천석
		정원호	박재문
		이종필	이문기
		김창중	백낙효
		서성욱	김영준
		장인선	정길상
		주상현	노동성
		이성익	이평우
		임서연	한인식
		신낙준	문성철
		김용일	한광섭
		전만동	심상우
		조광민	노영식
		정연웅	전성주
		김영동	신중의
		최상봉	경민석
		이동화	한창수
		김기승	이현영
		김기현	신영근
		한동섭	김용철
		한기용	임상철
		최창희	지학근
		이철주	윤창욱
		유하영	장승화
		김철주	김인성

대 전 표



1위 : 한국체육대학교
2위 : 명지대학교

3위 : 서울대학교
4위 : 광주실업전문학교



군 태권도 경연 대회

군은 지난 한해를 「전부대 체력 단련의 해」로 설정하여 백절불굴의 투지력 배양 및 초전필승의 전투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제 3군은 태권도 위주의 전투 체력 단련 실시를 위하여 1차적으로 교관요원 양성을 위해 3군 태권도 교육대에서 대대급이상 부대 태권도 교관요원 482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태권도 기본동작을 비롯하여 품세통일, 격파기술 보급, 기본명칭 통일, 교관지도 능력을 향상하여 전장병에 태권도를 보급하였으며 그후 중대급에는 항시 태권도를 지도하여 왔었다.

그리하여 전투체력의 단련으로 초전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청신력과 백전백승의 감투정신을 고취시키코자하는 목적으로 78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연 이틀동안 군체육관에서 태권도 경연대회를 갖었다.

대회의 운영방법은 순수한 고유의 태권도 정신을 살려 품세, 격파, 겨루기에서 최다득점한 개인 또는 종합점수가 제일 많은 부대를 우승으로 결정하였다.

3군 경연대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종합우승부대

○우 승: 보병 제9379부대

○준우승: 보병 제5213부대

이상과 같은 전적을 남기고 막을 내린 군태권도경연대회로 인해 태권도에 중요성과 봄을 조성하여 78년 1월에 유단자 군 전체보직인원 9,000여명에서 78년말에는 90,000여명의 유단자를 확보 장병 전투 체력향상에 기여했던 것이다.

나. 체급별 입상자

급 수	우	승	준	우	승
플라이급	상병 김 기 흥	김 문 석	일병 김 영 동	김 영 동	김 영 동
반 탐 급	병장 강 배 진	강 배 진	일병 최 규 진	최 규 진	최 규 진
페 더 급	상병 배 대 진	배 대 진	병장 최 영	최 영	최 영
라이트급	병장 강 용 수	강 용 수	상병 조 오 열	조 오 열	조 오 열
웰 터 급	병장 조 성 식	조 성 식	일병 이 상 석	이 상 석	이 상 석
미 들 급	하사 정 용 언	정 용 언	일병 이 강 국	이 강 국	이 강 국

군태권도의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의

적은 북괴임으로, 어떠한 전투에도 초전에 적을 박살내어 승리로 이끄는 것이 곧국방임으로 태권도로서 전투 무술화하여 백병전에서 적을 일격에 필살시킬 수 있는 실기능력은 물론 정신력을 강화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있다 하겠다.

나아가서 군태권도의 발전은 곧 국기 태

권도 저변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체위향상에 기여함이 크다고 하겠다.

태권도의 저력을 갖춘 군부대는 그러므로 실력이나 정신적인 면으로도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전장병이 태권도를 수련하여 화랑의 후계로서 그 정신으로 남북통일과업을 달성하고 필승의 감투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각군별 태권도 경연대회를 위한 예산은 물론 중앙대회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니 명실공히 태권도가 국기로서 국방무술화가 되었다고 하겠다.



콜롬비아의 태권도 유단자와 사범

국기원 방문

세계 태권도 연맹의 국제사범 자격으로 중남미의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콜롬비아에서 태권도 보급에 전념한지도 벌써 3년 째 접어들고 있다.

손발이 깨어지고 부러지는 고통속에서도 무던히 참으며 싸우고 가르치고 배웠던 시간들이었다.

그리하여 콜롬비아(Columbia) 태권도 보급이후 미국 시카고 대회에 선수인원 12명을 참가시켰고, 판·암(Pan America)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소규모의 인원을 파견함과 아울러, 국내 제 1회 공인대회 협회조직과 수도인 보고타에 리가를 구성하고 정식으로 보고타 체육회에 가입시켰던 일은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웃음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금번 태권도 국제선수단이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을 방문한 것은 태권도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기위한 것이며, 단순히 전강과 호신을 위해 가르치고 배우던 초기의 목적에서, 지금은 모두 건정따가 되어 태권도를 보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스웨덴 파나마 콜롬비아 재콜한 국민교포로 구성된 방문단들 중 스웨덴 정부의 협조로 내한한 여성 유단자 베로니카여사(38세)는 스웨덴 입시 협회장에 추대되어 북 유럽에도 국기 태권도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었다.

그리고 스웨덴 체육회 회장이 태권도의 올림픽광장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현대의 과학적인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공산국 큐바인과 유고슬라비아 인도 가르치게 되었는데 금번에 함께 한국을 방문하려고 무척 애썼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좌절되고 말아 서운하다.

그렇나 이렇듯 태권도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심어져 가고 있음을 자각할 때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느낀다.

내가 콜롬비아 외국인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국제클럽에 태권도를 지도하면서부터 세계의 30여개국 아이들에게 태권도의 사상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스페인, 큐바, 케냐, 남미제국 등의 사람들. 나라는 다르다 할지라도 태권도라는 한개의 점철된 운동에 모인 이들은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라는 우리의 모국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다.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0여국의 2,500명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심어주며 나 자신 새로이 배우고 시작하는 감동을 느끼곤 한다.

이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것은 아마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정신이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힘과 속도를 가미하여 신체밖으로 나오는 신비성 내지는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면 얻을수록, 굳건하고, 현태적이며 과학적인 태권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살고 있는 태권도에 대한 보편상식은 이미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보여진다. 태권도 사범들도 그들의 정신과 기술을 개발하여 종주국의 일인(一人)으로 우월감과 긍지를 온몸과 정신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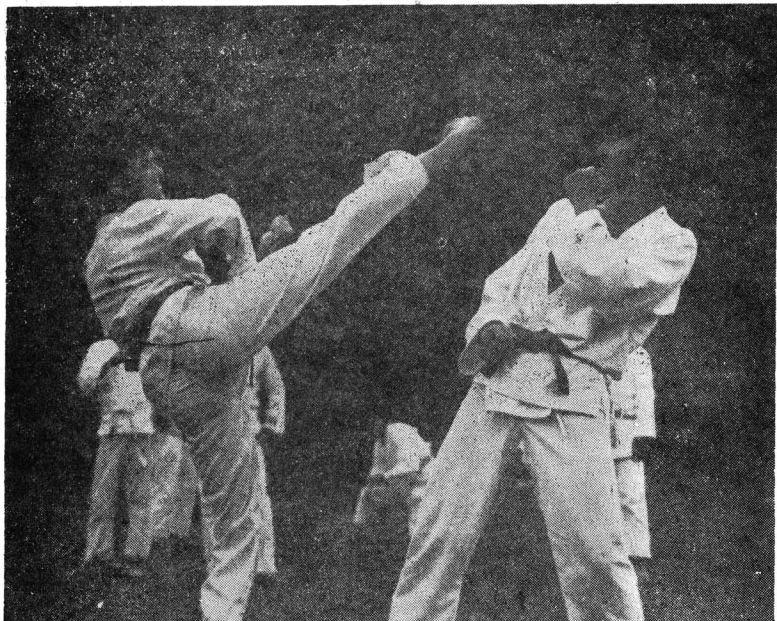
이번에 콜롬비아의 태권도 선수단이 종주국을 방문한 것은 그나름 많은 의미의 성과가 나타나

리라 생각된다.

많은 분들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도와주신데

감사하고 싶다.

콜롬비아태권도사범 이 기 정



스웨덴 베로니카양의 옆차기 수련모습(이기정 사범과 함께)

〈태권도의 발차기 계속〉

ㄷ. 공격부위—목, 얼굴, 팔

ㄹ. 호 파—발날베기와 달라 강한 힘과 날카로운 부분을 공격 무기로 삼으므로 상대의 방어 무기인 팔이나 손까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격 후 상대의 반격에 방어 할 태세가 완비되어 좋고, 손 공격을 제빨리 할 수 있다.

〈맺는 말〉

이제까지 실용된 발차기가 경기용 기법 몇 가지만 수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잊혀져 가고 있다. 일선 도장에서 수련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에 대답은 결정적 타격을

빨리 줄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복싱」에서 「잡」공격이 없다면 어찌 「카운트 펀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잊혀진 발차기, 묻혀있는 발차기, 새로운 발차기를 잘 연구하면 경기에서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격법도 많이 생겨나리라 생각 된다. 그리하여 단조로운 공격 형태에서 다양한 기술로 발돋움 할 수 있겠다.

이름 없는 발차기에 명칭 만이라도 붙여 주자, 그리하여 태권도의 기술영역을 넓혀 가자.

모든 태권도인의 참여와 연구 속에 발차기의 완전한 성전이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태극기 앞에서

김 순 철

(오스트리아 빈 무도관학교 사범)

꿈과 포부를 갖고 국기 태권도의 보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은 채 오스트리아 빈(wien)에 도착한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다.

처음으로 직면한 낯선 도시와 사람들 특히 의사(意思)표현을 하는데 언어와 생활관습의 변화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놀랍고 당황한 와중에서도 뜻 선생님의 경험담을 생각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태권도의 힘을 빌어 나는 의욕을 갖고 일하기 시작했다.

생소하고 뒤바뀐 환경에서 단신으로 일하며 불안해하고 몸을 도사릴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사람의 태권도인으로서 오천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배달민족의 한사람으로 스스로 자부하고 긍지를 다지며 도착한 이틀부터 수련생 지도에 나서게 되었다.

그전엔 이곳 무도관학교 관장인 스페르트 모슈씨가 100여명의 수련생을 제도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태권도의 본모습을 보여주기에 부족하였던 듯하였다.

나는 첫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태극기가 묵묵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수련전에 경례를 하는 일부터 태권 동작 하나하나와 우리말 구령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동양무술에 대한 호기심, 호신술이라는데 대한 매력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던 수련생들은 차츰 내가 하는 구령과 동작에 어김없이 따라 움직여 주는 것이 흠뻑했다.

나는 학생들 앞에서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젊은이들아!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우수하며 얼마나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태권도의 진미(眞味)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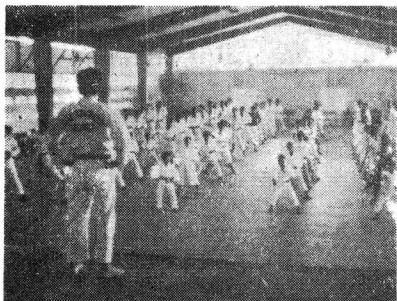
조국을 떠나야 조국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생

기고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말을 실감하며, 이제는 나혼자만을 위한 일이 란기 보담, 우리나라민의 정신력과 기술을 모범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국가적인 책임감이 문득 솟는 것이다. 지금은 열심히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 사범에 대한 예의는 물론 서로 서로 바람직한 경쟁심을 갖는 열의도 보여주고 있다. 강당의 벽에 정연히 버티고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나는 나의 감동적인 허약성을 극복하면서 보람을 갖는 것이다.



가 나(Ghana)에서

가나주재 사범 박 기 옥



씨름총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흩어져 있는 태권도 수련생들은 전부 모아 재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 아이보리·코스트, 캐나다 등의 수련생들은 약 두달에 걸쳐 새로운 품세와 기본동작을 가르치고 지난 1월 4일 아크라·테마지구 연합 심사대회를 가졌다. 약 백여명이 참석하고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도장은 참석을 못했다. 이곳에는 아이보리코스트나 기타지역에서 배운 초단들이 몇몇데 도장을 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훈련시킨 보람으로 모든 품세나 기본술이 이전 틀이 잡혀가고 있다.

다음의 심사는 3월 7일날 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엔 기필코 이곳 체육회에 태권도를 가입할 예정이다. 우선은 저변 확대가 문제인 것 같은데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있어 잘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태권도경기에 대해 이해시키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흥미를 갖게하기 어려워 홍보필름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낀다.

지금은 2개 코스 16주에 걸쳐 각군에서 선발된 이백여명의 태권도기초훈련과정을 마치고 2주간의 휴가를 받고 있다. 2월 26일부터는 이곳의 5대대(우리나라로 보면 수도 경비사)에 전부대 유단화의 계획아래 훈련을 시작하고, 국방부내의 체육관에서는 장교들뿐만 구성한 태권도 교육을 시작하여, 사관학교 생도들에게도 교육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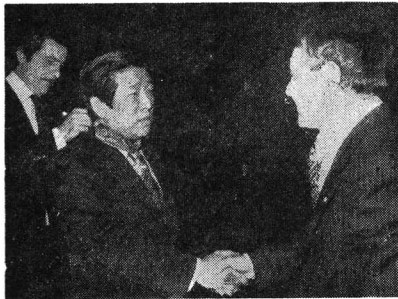
1기 2기 코스에서 뽑은 교관요원 20여명은 계속 교육시켜 사범 및 C.I.S.M. 계급의 선수로 기용하려 하고 있다. 이곳에선 방목에서 열렸던

계속적인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태권도인들의 파제는 곧 80년대의 스포츠무대에서 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과 세계속에 태권도의 자리를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세계연맹이 각 지역 연맹을 결성하여 지역단위로 태권도 보급을 확대시키고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 들어 현대적인 프로스프츠로 승화시키는데 태권도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운용회장의 대의원 총회 개최사에서〉

공로훈장을 받은 김운용회장



대한 태권도 협회 회장이며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인 김운용 박사는 1979년 3월 19일 이태리 대사관저에서 이태리 공화국의 지휘 공로훈장 (Commender of the Order Merit of the Italian Republic)을 받았다.

이태리 공화국의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총재에게 훈장을 전달한 마리오 크레마(Mario Crema) 주한 이태리 대사는 이자리에서 한국의 태권도가 지닌 우수한 기술을 높이 찬양한다고 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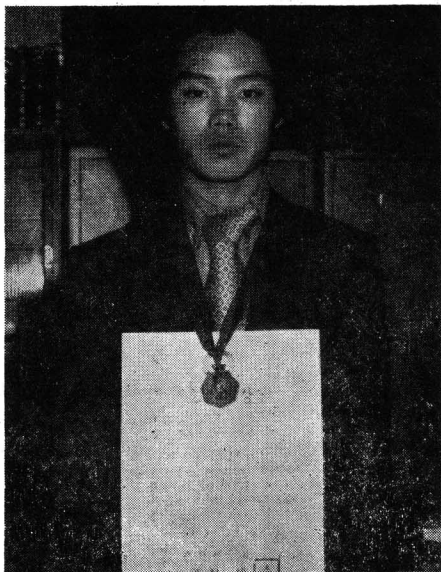
현재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 선수인 소령 허송(許松)은 1979년 2월 25일 12시 육군회관에서 많은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인 김운용박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1972년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하여 유럽원정을 비롯하여 2회에 걸친 세계대회에 참여하였고 국가대표선수로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1975년엔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하고 1977년엔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상한바 있다.

신부인 정은희(鄭銀姬)양은 1958년 12월 23일 생으로 서울여상을 졸업하고 가사를 돕고 있는 차분한 女性.

김운용 회장은 주례사에서 태권도 발전의 기수로 모범적인 사회의 일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를 보냈다.

1978년도 최우수 선수 김종기



76年度에 태권도 최우수선수로 선정 받은 바 있던 김종기 선수가 이제는 자못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금 78년도 최우수선수로 뽑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호주에서 개최되었던 제 2회 아시아권 선수권대회, 1977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제 2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그리고 78년 홍콩에서의 제 3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등 연이은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그 무적(無敵)의 힘은 무엇일까?

어떤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힘이 어린 소년으로서의 그가 이제 대학 2학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사각형의 마루판 위에서 집없이 뛰어오르게 했던 것일까?

그런 의문들을 갖고서 먼 곳에서 그들이 오듯 나타난 김종기 선수와 만났다.

키는 백 쉰십센티 정도로 보이고 좀 유약해 보이는 체구에 유독히 눈매가 날카롭다는 인상을 주는 선수였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근접하기 어렵고 냉정한 분위기를 갖고있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선입견은 거의 버릴 수 있었다.

그의 현주소는 충청남도 대전시 도마동. 태블리어 농업을 경영하시는 부모님과 남동생만의 단촐한 식구인데 그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생활했다고 한다.

국민학교 4학년 때 부터 시작한 태권도는 단순한 자기 호신에 기인했던 것. 좀 박약하고 선병

체질이었던 선수는 친구들과의 싸움에서는 늘 맡아놓고 맞는 입장이었는데 ‘그때의 일을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때만 해도 태권도가 지금처럼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유일하게 있던 도장에 입관을 하긴 했지만 처음은 부끄럽기도 했지요.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면서 어린나이에도 나 자신에게 어떤 긍지같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신으로 배운 운동이라기 보다는 나중엔 ‘내 신체’의 각 부분이 해 내는 묘기에 내가 도취되었던 것 같아요. 오랜 수련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은 하던 된다는 것과 끈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 갖고 있던 은밀한 컴플렉스도 없어졌구요. 하나의 인간으로 성숙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지요”

김종기 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남의 말 하듯이 했다. 다른 곳을 보면서, 아주 먼 곳을 보듯이 시선을 돌리고, 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국민학교때 중앙의 시험에서 3위를 했던 것을 연유로 현재 강남의 체육고등학교인 서울체육중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났던 거지요. 방학때만 내려가서 부모님을 뵈고 좀 정이 들 만 하면집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고 했습니다. 남들이 따뜻한 가족들과 따뜻한 정들을 나누며 가장 자극 받기쉬운 청소년시기를 넘길 때, 나는 춥고 배고픈 것을 배웠고, 나혼자 나를 책임져야 하는 것을 배웠고, 잡념을 없애기 위해 운동하는 것을 배운 셈입니다”

그가 좀 고집스럽고 강인하고 날카롭게 느껴지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가 최우수선수로 재선정된 필연성을 조금씩 긍정할 수 있었다.

한국체육대학에 적을 두고 선수생활을 해오던 그는 다음 이학년 1학기 부터 동아대로 편입한 관계로 부산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체육관과 기숙사와 탐과 운동기구들과 동료선수들만 알고 그 안에서 숨쉬어 왔던 그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 차츰 자신의 정

서적인 면의 고갈과 정신교양의 부족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계속 태권도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를 벗어나 종합대학인 부산의 동아대학 미술학과에 편입을 했던 것. 그리고 남은 캠퍼스 생활을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 열심히 보낼 것을 다짐했다.

김종기 선수에게 앞으로의 희망을 물으니 멋지게 웃으며 없다고 했다. 사실 미래에 기록될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개인의 욕망과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함부로 대답하기도 함부로 속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는 “희망이라는 거창한 말은 무섭고……”하면서 말 문을 열었다.

“우선 병역을 마치고 해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세계화 현대화되어가는 태권도의 현장들을 직접 접해보고 경험을 쌓은 후에, 국내에서 도장을 차리고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싫다는 전제가 붙는거고 내가 노력을 해야겠지요”

“꼭 잘되길 바랍니다”

김종기 선수는 집념이 강한 인물인 것 같으므로 태권도의 미래를 위한 유능한 기수가 되어줄 걸 믿어 의심치 않았다.

종교는 기독교. 부모님이 독실한 신자이므로 어릴 때 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그러나 현재는



김종기선수 자신이 충분히 자기를 시험하고 자신을 책임지고 싶다고……, 그런 면에서 그는 종교적인 안정된 인간이기 보담, 끊임없이 모험하며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웃사이더인지도 모르겠다.

그에겐 간혹 무섭게 냉소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점이 그의 젊음과 혼합되어 자아(自我)가 강한 일면을 엿보게 했다.

대개 그의 하루 일정은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로드·워크(road walk)으로 5km정도를 달리며 호흡조절하고 도장에서 가볍게 운동한다. 새벽운동이 끝나면 6시. 그후엔 등교준비를 하고, 캠퍼스 생활이 시작되며, 버릇은 모닝·커피(morning coffee)를 마시는 것. 수업은 시험이나 특별 수련이 없는한 빠지지는 않고, 학점도 한 학기에 이십삼 학점을 딸 정도였다고……. 수업후에 같은 태권도 선후배들과 운동을 하고 8시 정도에 귀가하며 귀가한 후엔 독서나 음악을 들으며 소일하고, 학교 테포트를 작성. 하루 취침시간은 일곱시간 내지 여덟시간. 대체로 규칙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도복을 입고 출넘기를 할 때 몸의 컨디션울 알 수 있는데,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아지는 때의 수련은 썩 만족하지만, 반면 몸이 무겁고 우울해질 땐 오기로 덤비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가정에선 장남 장손의 책임감때리고 있으나 부모 님이 아직 정정하지기 때문에 (父—김배씨(53세) 母—김상녀(52세)) 김종기 선수는 앞으로 몇년간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수생활을 하며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소감을 물으니 김선수는 예의 씩스런 웃음을 띄우고 이렇게 대답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제 2회 아시아태권도대회의 선수로 호주에 파견되었던 적이 있고, 77년도엔 미국 시카고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감회라기 보담 오히려 덤덤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어딜가나 체육관의 분위기는 비슷비슷한 때문인지도 모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경기를 할 땐 일종의 자존심같은게 생겨 꼭 이겨야한다는 생각 뿐이었죠. 다만 호주와 미국을 다녀온 후 그나라에 대해 느낀 것은 기계문명이 코드로 발달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도시는 어딘가 살벌하고 낭만이 없으며 삶에만 끈질긴 황폐함 같은게 있었고, 호주는 지금까지 오래 그 인상이 남을만큼 깨끗하고 조용하고 국민성도 힘조적이며 매우 자유분방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발을 맞추어 선진국의 계열에 견주어라도 우리 한국은 한국전통의 고유한 미를 오래오래 살리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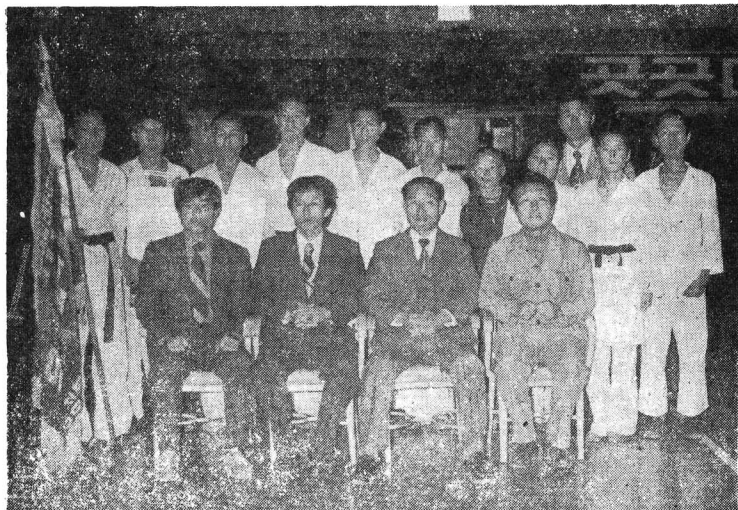
혼자의 힘으로 시작하고, 혼자의 힘으로 성취하고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는 일은 사회생활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무언중에 남의 도움을 받고,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도 좌절하는 수가 수없이 많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때, 김종기 선수는 일찍 의로운 투신을 태권도라는 특수한 스포츠에 했던 것이고, 주위의 여러분들이 돌구어 주는 용기와 이상을 발판으로 역량껏 뛰었던 것이라는 생각이다. 자기가 취한 현실(現實)의 조건을 아낌없이 이용하여 스스로를 키우는 그에게 늘 새로운 용기와 꿈이 주어지길 바랬다.

“많은 태권인 선후배 여러분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끝으로 김종기선수는 조용한 어조로 덧붙여 말하며, 또한 나그네처럼 훌쩍 떠날 차비를 했다.

跆拳道學校巡禮

—충북 가덕중학교편—



가덕중학교(교장 박재룡)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서 보은 속리산이 있는 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상 태권도 기합소리가 끊이지 않는 10개 학급의 남녀공학인 작은 시골학교이다. 1965년에 도교육위원회로부터 태권도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그 해에 도대표선수 2명을 양성하는 한편, 부산에서 열렸던 제 4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 9월의 충북 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학교팀으로 성장했다.

또한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본교의 태권도 지도 방법 및 일반학생들의 품급 취득 현황은 매년 100명의 유품자를 배출하고 매년 200명의 고급자를 양성하기 위해 1,2학년에 있

1.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적

횟수	대회년도	출전선수명	입상선수명	전적
1	75년 4회	지용범·지민규	페더급 지용범	금메달
2	76년 5회	오세운·신현수	반담급 오세운	금메달
			웰터급 신현수	금메달
3	77년 6회	이훈무·강종성		
4	78년 7회	신희범·신희범 노승우	헤비급 신희범	은메달

2. 전국 중교연맹 회장기 경탈 태권도대회 전적

횟수	대회년도	입상선수명	전적
1	76년 3회	반담급 오세운	금메달
		웰터급 신현수	금메달
2	78년 5회	웰터급 김완수	은메달

3. 충북 소년체육대회 전적(4년간 연속종합우승)

횟수	대회년도	출전내용	전적
1	75년 4회	단일교팀으로 8개급 전부 군 대표로 출전	종합우승
2	76년 5회	"	종합우승
3	77년 6회	"	종합우승
4	78년 7회	"	종합우승

4. 금년도 도단위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횟수	대회명	전적
1	제 5회 교육감기쟁탈 초·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종합우승
2	제 5회 중고연맹 회장기쟁탈 태권도대회	종합우승
3	23주년 청주도장 개관기념 및 중경기쟁탈 태권도대회	종합우승
4	제 1주년 충주도장 신축개관기념 태권도대회	종합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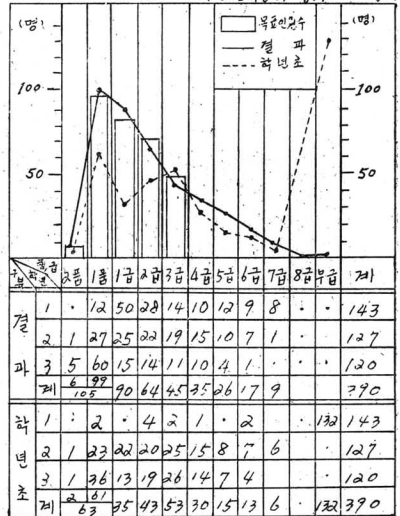
어서는 매일 보충수업시간 이후 2시간씩 남학생 전원 태권도를 실시하고 체육교과시간은 물론, 중간체조시간이나 크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지도 보급하고 있다.

태권도를 지도하면 다음 표와 같이 매 학년달에는 학년 초계획에 도달되고 있다.

교사 申賢植

품급취득현황

(전교합학생 390명, 78.11.11현재)



〈社 告〉

海外消息 投稿 歡迎

海外 駐在 사범의 投稿을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海外 駐在 師範의 投稿는 본 跆拳道誌의 編輯자료로서 海外 活動의 현황을 알고, 協會 자료에 도움을 주오니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여 빠짐없이 투고에 參與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接受된 原稿는 도착 順으로 本誌 < 해외로 떨어진 태권도 >란 또는 < 독자란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서울 미양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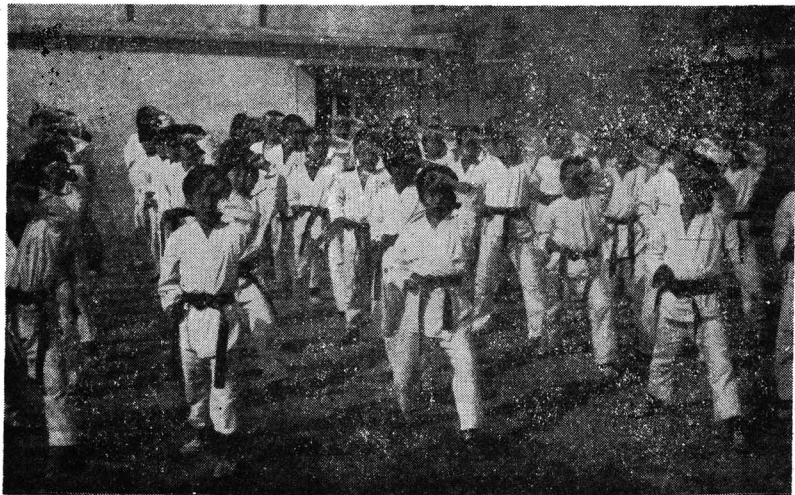
교 장 박 대 은

우리나라의 물질문명의 발달은 어제 오늘이 다르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에 뒤따르지 못하는 정신문화의 결핍을 피부로 느낀다. 더구나 생활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소외당한 취약지구 어린이들의 내일을 염려하는 미양국민학교 박대은 교장은 한국인임을 자부하는 정신력의 함양만이 문화발달의 기저가 되고 교육의 첨경이라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개발과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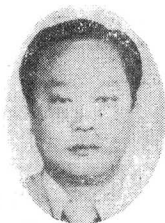
의 건전한 정신함양에 태권도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기초체력 배양은 물론 긍지를 지닌 미래의 한국인 창조에는 다른 분야보다도 국기 태권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부임하는 학교마다 태권도부를 육성 장려하였고 1977년 부터는 미양국민학교에 태권도부를 창설하여 5,6학년의 교육과정 이수는 물론, 태권도인다운 많은 어린이를 양성, 이제 완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메마르고 거친 환경속에서는 알찬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도교사 한구상씨는 투철한 교육관을 갖고, 기술분야에 앞서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격형성으로 문화계승과 계발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500여명의 수련생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100여명의 유품자를 배출하여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인으로서의 새마음으로 정확한 이나라의 일꾼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跆拳道哲學을 定立하자!



美

元

植

(協會專務理事)

왜 그런 冊을 샀던가 後悔莫及이었다. 차라리 가라메 表紙였다면 아예 거들며 보지도 않았을 터인데 이걸 「블랙 벨트」라는 月刊誌였고 대문짝만한 타이틀로 唐手道對跆拳道라고 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날도 무슨 外國人들과의 모임에서 밤늦게 파헤 거나한 氣分으로 光化門 書店街를 지나다 문득 발을 멈춘 것이었으니 굳이 탓하자면 그들의 술이 有罪였나보다.

카버·스토리를 읽어 내려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 歡息과 失笑가 거듭되었던지 집안사람들 表情이 모두 의아해져 나는 書齋로 피난 길에 올라야 했다.

내용인즉 이제 나이 34歲나 됐을 韓國 李某라는 젊은이의 一方的인 얘기를 記事化한 것인데 첫 文章부터가 여간 맹랑한게 아니었다.

1963年 韓國內서 跆拳道가 得勢하기 始作 모든 館의 各種 가라메를 制壓, 型의 統一을 이룩했지만 李某의 唐手道만은 美國으로 移住 健在 하다는 것이었다.

그 李某라는 青年은 “跆拳道는 現代의 國際의 스포츠이다. 그러나 唐手道는 武道다”라고 입을 떼더니 兩者의 修練 스타일은 비록 똑같다 할지라도 唐手道가 防禦의 技術상 한층 더 純粹한 것이기 때문에 自然 傳統面도 더 깊다고 強辯하고 있었다. 그는 이어 武道에서는 챔피언이 누구고 敗者가 누구든간에 重要한 問題가 아니다 단지 武道 特有的 傳統性을 重視한다. 그런데, 跆拳道같은 스포츠에는 그런 傳統性이 없다고 主張했다.

우선 한심한건 「리차드」씨라는 擔當記者의 記事取材 態度도 問題였지만 그래도 韓國에서 태어나 跆拳道에 入門, 美國에까지 건너가 그를 業으로 삼는 젊은이의 입으로 어떻게 그런 妄談이 나올 수 있을까. 다만 茫然自失 할 뿐이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볼 때 이 또한 나의 不德 나아가서는 우리 全 跆拳道人이 自責感에 빠를 저럴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勿論 “李某” 青年의 立場도 理解는 간다. 6.25 事變時 釜山서 거의 孤兒로 유달리 어렵게 지내

다 어찌어찌하여 美國에 건너갔고 그 곳서도 生活의 方便으로 道場을 運營하다 보니 텃 세 심한 日本의 가라테나 中國의 功夫에 떠밀려 劣勢, 窮餘之策으로 全美 唐手道聯盟이란 看板을 내걸게 된 모양이다. 그리고 門下生募集에 血眼이 되다보니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게 되고 及其也는 그런 妄言도 서슴치 않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측은한 마음도 있을 법한 노릇이다.

내가 여기서 強調하고 싶은건 이렇듯 우리의 箒 統合이 晩時之歡의 感이 든다는 것이다.

美 텍사스 州 같은 곳에서도 韓國의 跆拳道, 日本 및 中國의 술한 武術團體가 亂立, 過多競爭으로 심한 出血을 招來케 되자 스스로 모여 텍사스 아마추어 武道協會란 걸 結成, 1977年 12月 10日 그 統合總會를 연 바 있다. 勿論 저마다 利害相反 상이 團體는 會長은 없고 會員만 있지만 會員各者마다 권리를 行使하는 民主方式으로 維持된다. 統一된 規定아래 프로모타와 師範을 保有하고 技術적으로 어느 競技에나 適用될 수 있는 統合 競技 規則을 制定하고 있다. 거기 비하면 世界 跆拳道의 主人인 우리 立場은 부끄럽기조차 하다.

그러나 이왕 늦은 걸 책하느니 당장 跆拳道宗主國으로서의 哲學定立이 時急한 形便이다.

李某氏같은 挑發, 앞으로 더욱 거세어질 外勢에 對處하기 위한 精神武裝의 方便으로도 이는 必要不可決한 것이다.

事實 箒 統合 以前の 跆拳道는 어떤 意味로는, 양지바른 溫床에서 자라났는지 모른다. 적어도 精神面으로서 그렇다는 말이다. 日本의 가라테를 世界到處에서 實力으로 制壓하는 威風을 보여온 우리들이다. 먼저 가라테를 배우던 各國이 뒤늦게 進出한 跆拳道를 보고 하루아침에 가라테를 辭讓하고 다투어 跆拳道를 迎接하여 왔다.

그렇지만 跆拳道란 무엇이나? 가라테나 功夫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나? 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跆拳道人이 果然 얼마나 될까? 우리의 箒 統合이 迂餘曲折을 거쳐 어렵사리 이룩

된 만큼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質問들에 對한 對答도 各樣各色, 千態萬象, 종합을 수 없었다고하면 過言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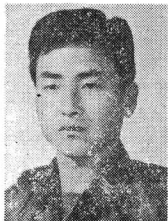
跆拳道가 지닌 弱點을 보는 것 같아 민망하게 조차한 問題, 哲學定立이다.

古代 이집트의 怪物 스팅크스가 太平聖代를 자랑하는 카이로 市街에 저녁 때면 나타나 아침에는 네발, 점심때는 두발, 저녁때는 세발로 걷는데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내노라는 카이로 市民들도 答辭을 못해 스팅크스에게 물려 죽었다. 어느 顯者가 “그건 바로 사람이다”고 明快한 答을 던지자 스팅크스는 부끄러움을 못이겨 나일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스핑크스」는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顯者일까? 李某 青年의 問題를 「스핑크스」의 質問삼아 各者 對答해 보자.



祖國防衛를 태권도精神으로



범 기 철

(육군본부 대위)

한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강한 체력과 정비례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국민체력은 곧 국가의 생산력과 방위력에 직결되므로 “체력은 곧 국력이다”라고 칭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국민의 건전한 정신과 강한 체력이 생동(生動)할 때만이 막강한 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날 우리 조상들이 화랑도정신(花郎道精神)을 통하여 삼국을 통일했던 고사(故事)는 이러한 건 국민의 단합된 정신과 체력의 소산일 것이다.

때문에 조국방위와 태권도는 곧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건전한 정신, 고도의 기술과 더불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조국방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머우기 우리나라는 오늘날 민족주체 의식의 승화도 그러하려니와 내외의 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체력의 향상 의 요긴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는 바로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도덕관 및 책임성 있는 인격을 갖추게 하려 급변해 가는 현실에 적응하고 나아가

서는 공산무리들의 도발을 박살내는 데에 첨경이 되게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근대화 의 역군으로서 제일먼저 갖추워야 될 정신적 신체적 무장도 이보다 더 없기 때문이다.

3천6백만 건 국민이 조국방위에 임하고 있는 지금 “국민총화는 국민체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곧 조국방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태권도의 유래를 살펴보면 태권도가 고대(古代) 고구려(무용총, 삼실총, 자저총의 벽화) 신라 2백제에서 볼수있는 원형의 실증에 의해 고려시대에는 태권도의 국수(國手)들이 있어 대신(大臣)들까지 태권도를 익혔고 임금께서 직접 참관하시었다.

이조 정조 14년(서기 1790년)에 왕명을 받아 이덕무는 불후의 무도교본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저술하여 태권도의 기저를 이룩하였으며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난에 직면했을 때 국난을 타개한 사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특히 서기 1592년 임진왜란때 성웅 이순신 장군의 충무공 정신은 군인정신의 극치였고 조현선생과 기려당 영규대사와 7백의총의 장렬한 산화, 김천일 장군의 절의정신, 권을 장군과 뇌목당 처영대사의 행주 혈전, 구국의 성승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염주를 깔, 주장라를 철피로 대응한 선검일여의 정신등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같이 영원할 것이다. 또한 근대를 지나오면서 서기 1950년 6.25동란때 백마3용사의 감투정신, 육탄 10용사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과 월남전에서 보여준 장병들의 군인정신은 우리의 태권도 정신을 온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필승의 본보기였던 것이다. 조국이 위난에 직면하였을 때 최첨단에서 맨주먹으로 투쟁하였던 태권도인의 무도정신은 위대한 민족의 정신유산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인은 일상생활중의 반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면을 과감히 탈피하고 오직 정의에 살고 불의에 죽을 수 있는, 조국을 위하여 마땅히 한송이 무궁화꽃처럼 피고 질수있는 정신무장(Spirit Equipment)을 해야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에 태권도를 보급시키며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종주국(宗主國)이다.

때문에 항상 부단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여 영원한 종주국이 되어야 하리라.

시대와 국가가 요구하는 건전한 정신과 강력한 체력은 한날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땀을 흘리며 뼈를 깎으며 수도하고 단련한 보람은 머지않아 엄청난 값어치를 안기게 해 줄것 이라고 믿는다.

때문에 200만 태권도인은 부단한 수련과 연구를 계속하면서 세계속으로 더욱 더 태권도를 뿌 리내리게 하는 임무까지도 과감히 수행해 낼때 젊은 태권도는 평상시에는 자아를 다듬어 배풀고(禪武) 일조 유사시에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劍武)무도로 이해되어 소위 선검정신(禪劍精神) 문무를 겸한 이상적인 무도로 귀의 될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국기 태권도는 인류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니 배달의 힘은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화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평형을 이룰때 조국방위와 국토통일은 물론 완전한 자유 수호가 이땅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武와 知가 겸비된 작은 天使들

이 규 형
(미동국민학교 태권도부 사범)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던 꼬마들의 뜨거운 입김을 서두에 소개한다.

「감 사 패」

○○○선생님께

세월이 흐르면 청산도 모습을 바꾸고 녹수도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선생님께선 우리 미동국민학교 태권도부를 국가대표 어린이 시범단으로 인정받기까지 맘 홀리고 애 쓰셨읍니다. 그것은 온통 사랑이요 정성이셨읍니다.

이제 그 사랑 그 정성에 보답키 위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살가 이 패를 드립니다.

1979년 2월 8일

서울 미동국민학교 제71회

태권도부 졸업생 일동

한 편으로 생각하면 더전한 마음과 더불어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감사할 줄 알며 은혜에 보답코져 하는 건전한 정신, 지혜와 슬기를 따듯한 사랑으로 표시한 작은 꼬마들에게 다만 앞으로도 계속 순수한 자세로 스스로의 생활을 올바르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73년 우연한 기회에 미동국민학교 태권도부를 담당할 나로서는 적은 인원에서 시작하여 국가대표 시범단으로 성장하고 그간 많은 유단자를 배출하기까지는 많은 아픔을 견뎌야 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武)의 수련 과정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의 기본 자세가 사랑으로 맺어졌을 때 무엇 보다

강한 힘이 지속된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된다. 태권도 하면 예의(禮儀), 염치(廉恥), 인내(忍耐), 극기(克己), 백절불굴(百折不屈)이 바탕으로 이루어진 무도라 생각한다.

어떤 알팍한 테크닉과 처세로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자세에서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또한 기본 바탕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할 때 더욱 이루어 질 수 없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겠지만 태권도는 시대가 요구하는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이 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맘을 홀리며 신념을 갖고 소극적인 동작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克服)하기 위해 뼈를 깎으며 수련하고 참고 견디는 인내 속에 자아를 발견하였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체력과 결부된다고 말한다. 지난 날 우리 조상들이 화랑도 정신을 통하여 삼국(三國)을 통일한 예는 이러한 정신의 자세에서 소산(所産)되어 나온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 모든 무술의 목표 설정에서 올바른 정의의 자세보다 사육의 자세에서 사도(斯道)를 취한다면 당연히 패배자의 아픔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태권도 사도는 단순한 표기 이전에, 깊은 자아 속에서 인간생존(人間生存) 의식을 육체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동물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인격을 구체화하려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傳統武藝)를 뜻하는 것이다.

태권도 목적이란 무도를 연마하는데 더욱 확실한 근거를 지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완성(人間完成)이 근원이 될 것이다.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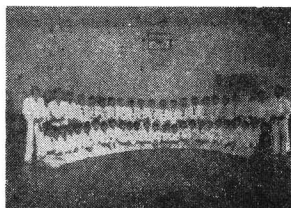
기 태권도는 여러 운동 중에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무술로 정신과 체력을 단련하는데 있어 가장 뛰어난 운동인 동시에 인간의 최상 능력·고도의 기술이 융합할 수 있다.

어려움 속에 싹튼 인간애

그동안 미동 태권도부가 초창기에 운동할 장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여 운동장에서 수련하던 때부터 지금의 단계로 성장하여 이르기까지 정도(正道)를 닦고자 수 많은 고생을 견뎌내며 남모르는 어려움을 안고 수련을 쌓아 이곳에서 배출된 어린이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닌 어엿한 대학생으로까지 성장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으로 계속 이어가는 미동 태권도부 졸업생들은 그들이 쌓은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조직된 「무인회」라는 자치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 데 몇 년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 달 한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가 하면 그외에도 시간 나는대로 나와서 후배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수련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의 선·후배간의 우의는 매우 깊어서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과 후배를 사랑하고 아끼는 미덕을 보여 준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물론 친구의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에도 이들은 자진해서 마치 친부모나 형제처럼 찾아가 위문을 하다가 하면 번갈아 가며 매일 매일 문안, 위로를 드리며 또한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생활이 곤란한 친구나 후배가 생기면 자자의 적은 용돈을 모아서 생활비와 학비를 보태주고 병원비를 내는 등의 일을 한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들은 스스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술선수범하여 나설 줄 알며 평소에 쓰는 말씨나 몸가짐 또한 항상 온화하고 부드럽고 어린 나이에 비해 위엄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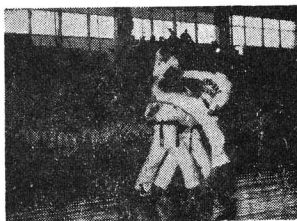
그리고 학업성적 또한 모두가 우수하여 각 학교에서 상위권을 다투고 있으니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으름가는 모범생으로 인정 받게 될 것이다. 가난속에 서로 믿고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 협동하고 희생할 때 말할 수 없는 고귀함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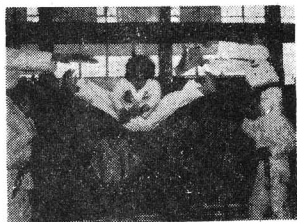
협회장님의 표창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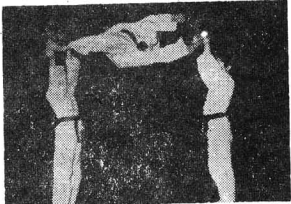
장�물 이단연차기



옆차고 회전뒤돌이 옆차기



양발 높이뛰어차기



가위차기

수련기

물론 태권도로 맺어진 따뜻한 친구들이지만, 해가 거듭 될 수록 집에서나 학교 생활에서 바른 자세로 성실한 노력과 더불어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사범으로써 고마움을 느낄 뿐이다.

“튼튼한 몸이 건전한 정신을 갖춘 어린이” 이라는 꼬마 천사들이 더욱 많아질 때 한국은 더욱 더욱 세계속의 강대국으로 커갈 수 있을 것이다.

Training Experience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러한 천사들과 함께 순수하고 진실한 인격을 키우고 이들의 앞날에 축복을 비는 것일 것이다.

후원회없이 가난한 속에 열심히 문(文), 무(武)의 배움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는 미동 태권도 어린이, 무인회 회원들께, 그리고 항상 태권도부 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주신 교장 이경란선생님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세계로 뻗어간 태권도

Taekwondo in the World



〈입장식 광경〉

제2회

중동 태권도대회

The 2nd Middle
East Taekwondo
Championships.



〈김플랫표지〉

제 2회 중동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978년 12월 29일 부터 31일 까지 중동 태권도연맹의 주최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1개국의」 7개팀이 참가하고 선수단 75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동에 부는 태권도의 열풍을 확인케 했는데, 각 참가국은 튀니시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북예멘, 레바논, 이집트, 오멘 이에 대회 전적은 1위 이집트, 2위 사우디아라비아, 3위 북예멘이 차지했다.

날로 확대되어가는 태권도 보급의 기수로서 중동지방의 태권도 발전에 힘쓰는 파견사범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코우치의 자질

노 상 석

(한국중고배권도연맹전무이사
서울체육고등학교교사)

코우치가 그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를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코우치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신중하게 다루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어떤 한 사람의 코우치에게 성공적으로 입증되었던 기술과 방법이 다른 코우치에게는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아리조나 주의 프랭크 쿠시(Frank Kush)는 축구에서 가장 혹독한 코우치로 인정받고 승리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성공적인 코우치의 한 사람이었다. 만일 그의 선수들 중의 한 사람이 실수를 범했을 때는 운동장에서 그 선수의 헬멧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계 매리곤했다는 것이다. 오하이오 주에서 장기간 성공한 코우치는 연습 중에 실수가 벌어지면 그의 시계를 벗어 땅바닥에 세계 내리치거나 그의 모자를 벗어 조각조각 쥐어 뜯고는 하여 다혈질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티임이 이것을 때때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

또한 수년 동안 펜실베니아 주의 제조 코우치였던 진 웨트스톤(Gene wetstone)씨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티임이 이것을 떠나 갔을 때나 별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요점은 코우치해 나가는 데에 유일한 옳은 방법, 혹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코우치 초년생은 다른 사람의 승패의 기록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의 것이 성공적인 방법이라 믿더라도 모

방해서는 안된다. 유명한 코우치의 기술이 자기 자신의 개성에 맞지 않을 때, 중요한 때의 코우치를 그 기술에 따라 결정해 나가는 위험한 일이다. 가르치는 자 코우치의 철학관, 그 자신의 개성 또는 환경등이 그가 얼마나 코우치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가를 결정해 줄 것이다. 코우치들은 오랫동안 거칠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오 해 왔고 이 가면을 벗는 것을 주저해 왔다.

결과적으로 선수들은 번번히 그들의 코우치와 친하기를 꺼려하며, 코우치 자신도 그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일에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학교나 직장을 떠난다. 수 많은 코우치들이 이런 경우에 빠져 들어갔다. 그러한 사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사실상 티임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방해가 된다.

(1) 훌륭한 코우치들의 자질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

코우치는 목표가 오직 경기에 이겨야 한다는 "태장간 마치"같은 개성보다는 오히려 폭넓은 인성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 어떤 코우치들은 오랫동안 굳어진 고정불통의 이미지가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건전하고 교육적인 면보다는 그 코우치 개인에 관한 불안감의 문제일 것이다.

코우치가 발달시켜야 할 또 다른 자질은 그가

코우치하는 모든 것에 대해 사려깊은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우치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한다는 이유에서 단순히 운동 경기를 해서 는 안 된다. 코우치는 역시 그가 코우치하고 있 고 전에 코우치했던 각 개인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흥미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한 코우치와 매일 매일 직접적으로 선수 들이 관련이 되지 않았을 때, 시합기간이 끝난 후에는 선수들에게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지를 알기가 매우 힘들다.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코우치라도 선수들에게 시합 기간에만 신경을 쓴 다든지, 운동을 할 때만 간섭하라는 말에 결코 따르지는 안될 것이다.

코우치는 선수들의 퍼스널리티, 환경, 성격 등 을 주관하는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며 대단히 어 렷은 난관에 부딪친 선수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선수들이 코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코우치의 존재는 학생들의 힘과 위안으로 봉사할 것이라 는 점을 의미한다.

(2) 사람들에게 동기 제공

개인 스포츠에서 동기는 선수 자신에게서 나 올 수 있으나 팀인 스포츠에서 동기는 헤드 코 우치로부터 먼저 나온다. 다른 모든 조건이 고 임마다 같다고 할 때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지고 정신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은 더 많은 경 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코우치가 팀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타오르는 열망을 선수들 에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 때 이 팀은 항상 다른 팀이 경쟁하기 어려운 팀이 된다. 근 소한 차이에서 패배했다면 이것은 그들이 상대 팀보다 의욕이 없는 경기를 했거나 그들의 최 선을 다하겠다는 성취 동기가 결여되어 있었을 것이다.

코우치가 있는 수 만큼 성취 동기를 고취시키 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선수들을 분발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나 다음 달 다음 해로 미룰 수 없고 이번 주에 해야 할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사람들 환경, 기분, 팀의 개성 등은 계절에 따라 변하게 된다. 동시에 코우치는 팀에 동

기를 부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거나 최선을 다하도록 다루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 항상 민감해야 한다.

코우치들은 팀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감 화력 있는 설득, 유유머, 변호, 접주기, 등의 일에 의존한다. 개개인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자극하여 보는 것은 동기 유발에 있어서 때로는 매우 능률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동기를 증가 시키기 위해 과대하게 선수들에게 요구를 하면 실제로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문제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동기를 결정하는가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알맞은 동기는 팀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시기는 역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한다. 옳은 일을 적당하지 못한 시간 에 이야기하는 것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동기를 유발시키면 경기에 는 싫증을 느끼게 되며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팀을 지쳐 버리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가 장 알맞은 방법은 정신적으로 여력날 전에 경기 에 대비한 연습을 시작하며 경기 시에 극점에 이르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3) 동기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능력

최선을 다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를 계속적으 로 유발시키는 능력을 코우치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이다. 똑같은 여건 속 에서 경쟁을 했을 때 가장 훌륭한 마음 가짐을 가 진 팀이나 정신적인 준비가 잘 된 팀이 승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코우치들은 운동의 역학적인 측면에 너무 몰두해서 개성을 무시하거나 코우치 자신이 높게 동기가 유발 되어 있어서 팀의 동기가 이미 유발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코우치들은 그들의 코우칭, 경력 을 통해 이러한 자질을 발전시키고 완전하게 하 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헌신적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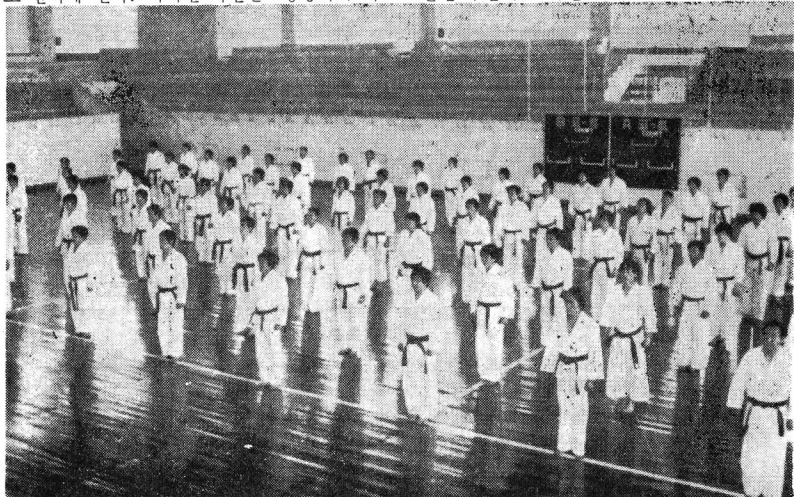
헌신은 훌륭한 코우치의 또 다른 자질의 하나 이다. 그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헌신이라면 우 수한 코우치로 만들어 주고, 훌륭한 운동을 만

들어 주며, 참가하는 젊은 선수를 위해서도 매우 모범적인 일이 될 것이다. 코우치는 우수한 코우치가 되기 위한 타오르는 열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하는 일이 무엇이든간에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스스로가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만일 이런 종류의 헌신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아마도 코우치로서 평범한 수준을 넘어 더 진보할 수 없을 것이다. 젊은이나 선수들은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우치는 어느 의미로 길잡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칙이 정립되면 코우치는 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 시간에 상관없이 시종 일관해서 동등하게 조정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세워진 규칙에 예외되는 것은 코우치에게 골치아픈 문제를 야기시킨다. 초보 코우치에게 여기서 바라는 중요한 요점은 그 스스로의 인내력을 갖추는 일이다. 목표에 따라 계획된 시간표는 재평가되어야 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코우치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할지도 모르고 운동 선수들의 능력을 잘못 판단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그가 더욱 더 경험이 풍부해지고 코우치로서 성숙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의 목적도 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정상이며 목

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다음이 조급해서 낙심해서는 안된다. 선수 평가나 재능을 판별하는 능력은 모든 코우치들이 발달시켜야 할 또 다른 자질이다. 선수의 평가나 재능을 판별하는 방법은 운동 경기를 보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다.

코우치가 “만약 강한 선수 더 빠른선수 더 많은 선수가 있었다면……”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시간 낭비이다. 무엇이 효용이 있느냐를 상황에 맞게 즉시 조처하고 잘 가르치며 선수가 최대의 효과를 낼게 할 기회를 만들어줄 전략을 세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선수를 여러 위치에 놓아 보아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직도 약점이 있다면 상대 팀이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그 약점이 무엇이든 위장을 해야 훌륭한 코우치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노력해야 한다.

각 코우치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획하는데 소모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가 이다. 선수들은 코우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더욱 열심히 기꺼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코우치가 필요로 할 솔선 수범하는 자질과 유사한 요소이다. 코우치



는 연습 계획에 관한 어떤 것이든 적당주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코우치는 선수들이 바른 방법으로 개성에 맞는 방법으로 해서 비록 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간에, 옳은 방법으로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는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인의 능력, 속도, 동등에 관련된 요인의 기초 위에 티인이 운동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심리적으로 학생들은 성취 동기가 높아도 평범한 수준에서 자기 실력을 높이며 노력하지 않으려 한다. 운동에 있어서 코우치는 각 개개인이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운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고유한 책임이다. 또한 시험을

해 나가는데 인내력이 부족하고 세세하게 해 나가거나 근근적으로 해 나가기를 꺼리지만 코우치들은 이렇게 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코우치는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단지 운동보다 그들의 마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교사들이 이와 같이 생명체의 특성을 가지는 티인을 마치 완성된 집단으로 보는 점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그 구성원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 신체적 능력을 이해하면 코우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코우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잘 조화시켜 학생이나 선수를 다루면 강한 티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계간 태권도지 구독안내

날로 벌어가는 태권도는 세계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권도지 애독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회를 거듭할수록 발행부수가 늘어나는 기쁜소식을 애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태권도지 구독을 문의하시는 많은 애독자를 위하여 정기구독 신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 대한 태권도 협회 태권도지 구독담당자 앞.

1 년 간 구 독 료	1,240원(송료포함) 국내
----------------------------	-----------------

.....결.....취.....선.....

No _____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구독구분		

- ※ 1. 정자로 정확히 명기할 것.
 2. 구독분에는 1년간과 6개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써 넣을 것.
 3. 구독료는 소액함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협 회 동 정

☆1978년 12월 3일(1차) 17일(2차)

제81회 중앙 승품 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차~850명, 2차~962명

☆1979년 1월 14일

제82회 중앙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875명

☆1978년 12월 8일

영국 무술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 유럽

공수도 연합회 사무총장 국기원 방문, 환영연

무시범대회

☆1979년 1월 24일

제83회 중앙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626명

☆1978년 12월 9일

제25기 지도자교육 수료식

장 소 : 국기원

수강생수 : 92명

☆1979년 2월 11일

제84회 중앙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073명

☆1978년 12월 9일

제85회 전국 승단심사대회(4단 이상자)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79명

☆1979년 2월 17일

제86회 전국 승단심사대회(4단 이상자)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30명

☆1978년 12월 10일

제85회 중앙승단심사대회(3단 이하자)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016명

☆1979년 2월 18일

제86회 중앙 승단심사대회(3단 이하자)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742명

☆1978년 12월【28일】

1978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장 소 : 대한체육회강당

대의원수 : 17명

☆1979년 2월 25일

제85회 중앙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070명

K.T.A. Journal

***December 3, 17, 1978**

The 81st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1812 Persons

***December 8, 1978**

Mr. Artheer Rees, President & Mr. David Mitchell, Secretary-General of the British Martial Art Commission and Mr. Paul Hogulund, Secretary-General of the European karate Union visited kuk-ki-won and observed Taekwondo demonstration.

***December 9, 1978**

The 25th Taekwondo Instructors Refresher Course

Place: Kuk Ki Won

Applicants: 92 persons

***December 9, 1978**

The 85th National Dan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79 Persons

***December 10, 1978**

The 85th Seoul Area Dan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1016 persons

***December 28, 1978**

The 1978 Annual Conference of National Delegates of the K.T.A. was held at K.A.S. A. auditorium.

***January 14, 1979**

The 82nd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875 persons

***January 24, 1979**

The 83rd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626 persons

***February 11, 1979**

The 84th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1,073 persons

***February 17, 1979**

The 86th National Dan Promotion Test (up 4th Dan)

Place: Kuk Ki Won

Applicants: 742 persons

***February 25,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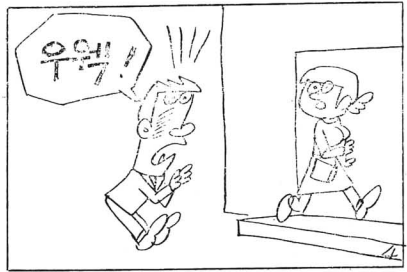
The 85th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1,070 persons

태순양

최경철



태권도의 발차기

특수 발차기에 대해서

안 해 육
 (성남시 구계태권도장 사범)
 서울시 가리봉태권도장 사범)



태권도에 있어서 발차기 공격의 형태를 연구하여 볼 때 발의 모양, 발의 움직임, 보는 각도, 보법 등에 의해서 분류하고, 명칭을 붙이고 있으나, 연구 개발되는 새로운 발차기와 기존의 기법 중에서도 보편화 되고 상용되는 기법은 더욱 연구되어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잊혀진 기법은 이름조차 없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정된 기법도, 깊은 학문적인 뒷받침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상식적인 발 모양에 따른 공격 부위, 그 정확한 급소, 효율되는 기회, 가장 이상적인 몸의 모양, 다음 동작과의 연결, 힘의 강약, 발달되는 근육, 주의 할 점 등에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하다.

요즈음 태권도 수련 시 없어서 가는 발차기와 새로운 발차기 몇 가지를 연구 발전 시켜주었다면 하는 바람으로 모양과 사용도만을 간단히 적어 보았다.

(1) 뒤돌아 내려찍기

㉮. 발차기의 모양—내려찍기를 뒤로 몸을 돌려서 공격하는 방법이다. 공격 발은 뒷꿈치나 발바닥이고, 돌아서 발을 들어 공격하지 말고, 몸이 회전하는 순간에 발을 올려야 한다.

㉮. 사용도—몸 돌려 후리기 공격을 상대가 몸을 짓히고, 앞차기 기법으로 반격을 잘 하는 것 같으면, 이 발차기로 공격 한다. 유효하고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 공격부위—얼굴, 앞 가슴, 명치

㉮. 효 과—상대의 의표를 찌르는데 그 효과가 있다. 특히 완전한 모양이 이루어 지기 전엔, 후리기와 구분 할 수 있는 판단을 상대에게 주어선 안된다.

(2) 뛰어 뒤돌아 내려찍기

㉮. 모 양—뒤돌아 내려찍기를 뛰어서 하는 것이다.

㉮. 사 용 도—앞차기 기법에 받아차기로 쓰일 수 있고, 뒤돌아 내려찍기의 사용도도 함께 할 수 있다.

㉮. 공격부위—얼굴, 가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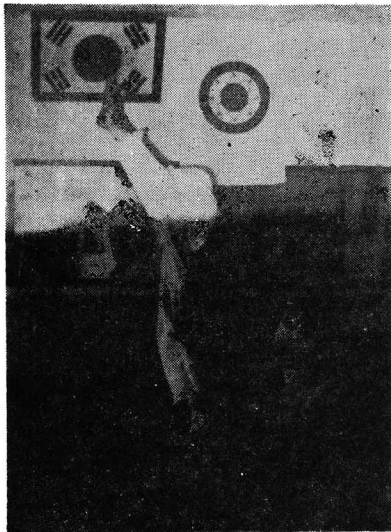


철조해 주신 김양진씨와 함께

㉒. 호 파—상대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신계 공격은 위험 부담이 많아서 나쁘다.

〈참고〉 뛰어 뒤돌아 내려찍기의 각도에 따른 발차기 분류는 생략 한다.

〈예〉 45도 대각선 내려찍기 등



〈사진 3〉

(3) 둥근찍기

㉓. 모 양—뛰어 뒤돌아 내려찍기와 비슷하게 보이나 요령은 다르다. 몸이 완전히 뒤돌아서 공격이 끝날 때까지는 뛰어 내려찍기와 같으나 몸이 회전 할 때 앞 「덤블링」식으로 좌우

회전만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도 회전 한다.

㉔. 사 용 도—상대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때 같이 공격 한다.

㉕. 공격부위—얼굴, 정수리, 어깨 가슴

㉖. 훈 파—굉강히 어려운 공격법이나 고도의 수련만 쌓으면 가능하다, 발 공격에서 이것 이상의 강력한 공격은 없으며, 전신으로 피하지 않고 얼굴막기 정도론 막을 수 없다. 성공하면 적에게 결정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

(4) 호미차기

㉗. 모 양—앞차기의 정 반대 기법이다 등을 상대에게 보인 상태에서, 무릎을 오무렸다 펴면서 공격 한다.



〈사진 4〉

㉘. 사 용 도—앞측이나 발등으로 공격하며, 같은 앞차기 공격시나 돌려차기를 갑자기 변화시켜 차기도 하고, 그냥 호미차기를 해도 좋다.

㉙. 공격부위—발등으로찍는 얼굴 가슴, 앞측으로찍는 명치, 상대의 앞 다리 중 무릎 윗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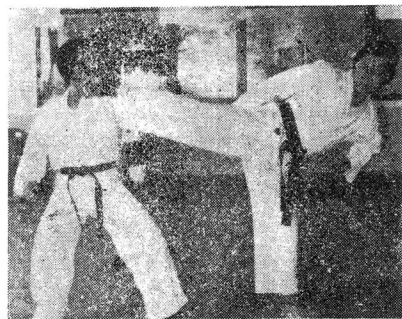
㉚. 훈 파—상대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데 그만이다.

(5) 반대 돌려차기

(㉛) 모 양—앞발 뒷꿈치로 측면 공격하며,

공격이 끝나는 마지막 모양은 옆차기와 동일하다.

ㄴ. 사 용 도—전에는 상용되는 기법이 있는데, 속도가 없고 배우기가 어렵다 해서, 근태에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랜 수련을 한 사람은 무서운 속도와 파괴력을 낼 수 있다. 뒷꿈치로 공격하며, 제자리 또는 나아가서 공격하나, 특히 앞 돌려차기 한, 발을 발바닥의 반탄력과 허리 힘을 이용 공격 한다.



〈사진 5〉

ㄷ. 공격부위—얼굴, 명치

ㄹ. 훈 파—앞돌려차기 한 발이 지면에 완전히 떨어지자, 기회라 생각 하고 들어 오는 상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예측 못하는 방향에서의 공격에 효과를 본다.

(6) 끌어차기

ㄱ. 모 양—반대 돌려차기를 한 다음에 90~150도 각도로 무릎 관절을 굽힌 상태이다.

ㄴ. 사 용 도—발 공격을 피하고 상대가 접근하는 상태나 옆으로 상대가 접근하는 상태. 그리고 적의 중심이 불안해 보일 때, 닥아서서 반대 돌려차기의 공격을 가할 시 거리가 좁혀졌을 때 사용하고 상대방을 넘겨 쓰리는 기술로도 사용한다.

ㄷ. 공격부위—얼굴 등, 무릎 관절, 얼굴, 발목

ㄹ. 훈 파—주로 넘기기와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데 쓰이나 반대 돌려차기 보다 거리

가 좁혀졌을 때, 상대가 등쪽 측면으로 앞으로 나올 때 앞 발로 공격 한다.



〈사진 6〉

(7) 몸돌려 올려차기

ㄱ. 모 양—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무릎을 90도 꺾어서 들어 올린 상태

ㄴ. 사 용 도—수기로 공격. 후 반격하는 상대를 몸을 회전 시키면서 반격 하기도 하고, 상대의 선제 수기 공격시, 바로 돌면서 공격 한다 그리고 발 공격 시는 거리가 좁혀졌을 때 갑자기 공격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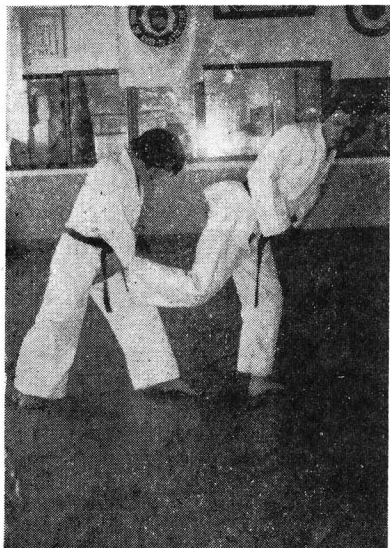
ㄷ. 공격부위—낭심, 몸통 아래 부분.

ㄹ. 효 파—접근전에서 상대의 공격이나 반격을 저지하고 시간 여유를 얻는다(뒷꿈치 또는 발바닥으로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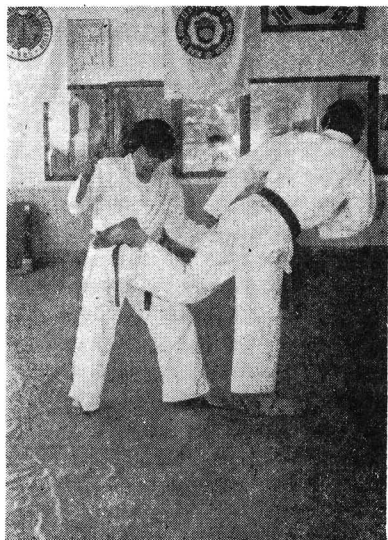
(8) 뒤집어 뺄날차기

ㄱ. 모 양—몸 돌려 올려차기와 비슷한 반 모양이나, 몸이 상대와 사선으로 선다.

ㄴ. 사 용—앞차기 공격 후 발을 지면에 밟



〈사진 7〉



〈사진 8〉

고서, 갑자기 몸을 돌면서 발날로 공격하거나, 또는 수기 공격 후 접근하여 공격도 한다.

㉔. 공격부위—낭심, 명치, 옆구리, 허벅다리 무릎관절

㉕. 효 파—상대가 전혀 생각 못하는 각도와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큰 타격을 줄 수 없는게 흠이나 상대의 강한 공격의 리듬을 깨고 기선을 제 할 수 있어서 잔 기술이나 유효하다.

(9) 끊어차기

㉖. 모 양—끊어차기의 형태상 분류로써 앞차기, 내력찍기, 돌려차기 등도 있으나, 가장 어렵고, 또한 효과적인 몸 돌려 끊어차기만을 적는다.

몸돌려 끊어차기는 옆차기에서 무릎을 완전히 접은 상태이며, 앞 돌려차기의 준비 태세와 같은 동작이다.

㉗. 사 용—끊어차기는 어려운 기법임에는 틀림 없다. 몸을 뒤 돌아서 후려치다가 상대방의 일직선 상에서 무릎 관절을 강하게 접으면,



〈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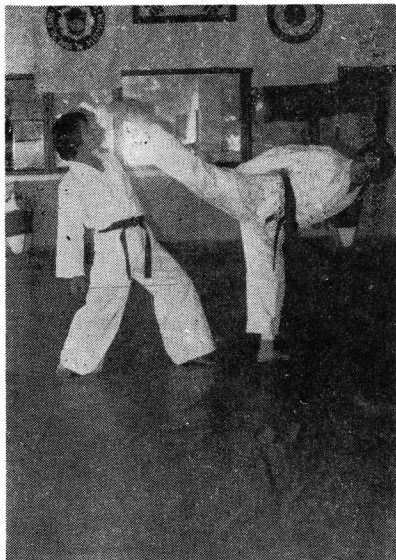
그 속도감이 배가 된다. 갑자기 심하게 움직이면 물체가 정지 한 다음 순간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려차기를 하다 거리가 좁혀져 휘갈기를 하는데, 이 기법과는 다르다. 후려차기를 하고 떨어질 때, 상대로부터 받는 공격을 막을 수 있고, 한 발을 지면을 밟지 않고서, 앞차기, 내리찍기, 물러차기, 옆차기 등으로 연결 한다. 능숙하면 끊어차기 다음 동작에 몸을 나아가고, 물러 가면서 공격 한다.

ㄷ. 공격부위—상대의 전신이 가능함.

ㄹ. 효 파—상대의 공격 「리듬」을 걸 수 있고, 이 기법에 능하면 중심 이동에 뛰어난 고수가 될 수 있다. 끊어차고 다음 동작에 들어갈 때, 힘을 강하게 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어느 때, 어느 각도, 어떤 부위든, 공격이 가능한 전진후 요격기가 될 수 있다. 상대의 공격을 마비 시키고 공격 기회를 빼앗는다. 다만 수련 과정이 어렵다.

능숙하지 않고 설익은 이 기술을 겨루기에서



〈사진 10〉

손해를 자초하게 된다. 그러나 오랜 수련은 발로써 숫가락 질을 할 수 있게 하는 태권도 발기술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

(10) 발날베기

ㄱ. 모 양—발을 꼭 찢고 들어서, 발가락 끝이 칼 끝과 같이 만든다.

ㄴ. 사 용—발날 부분으로 측면을 공격 하는데 주로 낮게 무릎 관절이나, 장단지, 발목등을 공격 하는데 쓰이나 높은 공격에도 쓰인다. 신체 공격시만 사용하고, 공격을 한 뒤, 발이 상대의 옆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 떨어졌을 때 사용 한다.

높은 곳을 공격 할 시는 몸을 뒤로 젖히고 하며, 허리는 비틀어차기와 같은 요령으로 든다.

ㄷ. 공격부위—발목, 무릎, 옆구리, 목

ㄹ. 효 파—대형 공격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빠르고, 공격 다음의 손 공격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매우 눈부시다.

(11) 뒤돌아 발날베기

ㄱ. 모 양—몸을 뒤로 돌리는 것 외에 발날베기와 동일 하다.

ㄴ. 사 용—물러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바로 들어오는 적을 공격해야 거리감이 맞다. 상대의 아래를 공격하여 넘어 트리는 데 많이 쓰인다. 상대 공격 후, 나아가며 공격도 하고 수기 공격을 얼굴에 할 수 있는 실전용에 많이 쓰인다.

ㄷ. 공격부위—발목, 무릎, 허벅다리, 옆구리 목, 얼굴

ㄹ. 효 파—민첩성과 손과의 연계 동작에 매우 좋다. 발이 부드러워지고 허리가 좋아진다.

(12) 뛰어 뒤돌아 발날베기

ㄱ. 모 양—뛰어 몸을 돌리는 것 외에 발날베기와 같다.

ㄴ. 사 용—상대의 직전 공격을 받아서 차는데 많이 사용 된다. 편 발을 오무리고, 몸과 다리는 직각이 되어야 강한 힘이 나온다. 도약을 잘 하여야 한다. (17에서 계속)

跆拳道의 國際化

金 桂 洪
(한국태권도대학연맹이사)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고조(高調)되고 있는 현상(現象)은 한국 고유(固有)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가 실용면에 있어 그 가치성을 높이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스포오즈 문화가 태권도 교육으로서 처음 개화(開花)된 것은 해방 후이며 경기의 스포오즈화로 현재 국제 경기 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올림픽 종목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견지(見地)에서 볼때 태권도가 격투기(格鬪技)로서 신체 각부분을 이기(利器)로 다양(多樣)하게 꾸민 플레이에 있다고 하겠으나 정신 단련에 더욱 의의(意義)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포오즈와 태권도를 비교(比較)하면 신체와 정신의 단련에 공통성을 지녔고, 그 근본(根本)을 더듬어 보면 동양적(東洋的)인 것과 서양적(西洋的)인 차이(差異)라 할 수 있다. 스포오즈는 서양 철학의 정신구성(精神構成)이 깃들었고, 태권도는 동양고유의 철학적 정신구성이 깃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권도가 실천(實踐)에 있어서, 예절(禮節)은 태권도가 지녀야할 정신을 지지(持支)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심원(深遠)과 선(禪)이 연결(連結)되는 깊이가 존재(存在)하고 있다. 서구인(西歐人)이 태권도에 몸담아 삼매(三昧)를 느끼는 까닭은 동양적인 심오(深奧)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올바르게 싸우고 감투정신(敢鬪精神)을 관양(觀揚)하며 빼어플레이를 존중(尊重)하는 스포오즈의 전통은 서구적인 장점(長點)이며 기사도(騎士道)의 표현(表現)이며 칭찬할 수 있는 특질이라 하겠다.

이러한 스포오즈의 미점(美點)은 태권도와 서로 상통(相通)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장단점(長短點)을 비교 하려는 것은 호기심(好奇心)을 지닌 사람들의 소행이며, 비생산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요(要)는 학습하는 태도가 중요(重見)한 문제가 된다.

인간형성(人間形成)에 있어서 태권도로 무엇을 터득하고 스포오즈에서 어떤것을 체득(體得)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스포오즈와 태권도를 통한 생활화의 제목(題目)이 깃들게 된다. 결국



우리를 생활과 관계되지 않은 스포츠와 태권도는 존재 할 수 없다. 더욱 생활 속에 가두고 다듬어 꽃피워야 할 과제(課題)이다.

그러므로 스포츠와 태권도의 서로 다른 점을 과장(誇張)하거나 또는 오대시(誤大視)하는 것은 벌써 학습하는 태도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올바른 생활 철학과 몸가짐을 지닐 수 있게 심신의 운율을 지닌다. 앞서 프레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일본 선수들이 한결같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무도인다운 태도를 지니도록 강조한 바 있었다. 한국의 투기(鬪技)는 태권도를 비롯한 10여 종목에 이르고 그 용어는 무술을 포괄(包括)한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근본적으로 심신(身心)을 단련하는 데 있고 술기(術技)가 다를 뿐이다. 사실 태권도의 본질(本質)은 무술의 처음 원형(原形)이 된다. 사람이 지상(地上)에서 활동하게 되자 방위본능(本能)이 바로 무술의 시초가 되었다. 현재 태권도가 경기에 있어서 찌르고 발로 차는 동작은 자기(自己)방위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태권도의 원류(源流)를 더듬어 오르는 원시(原始)시대부터임을 알 수 있다.

싸움의 고사(古事)에도 발로 차서 상대를 눌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실용투쟁(實用鬪爭)의 본능적 소작(所作)임을 알 수 있는바 인간(人間)과 짐승(禽獸)과 인간이 서로 투쟁하는 곳에 무술이 불가결(不可缺)한 요소(要素)가 되었다. 이러한 내력을 지닌 맨손을 기본으로 무술의 역사는 인간의 발자취와 더불어 발달되었음을 누구나 부인(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태권도가 무술로 부터 발달(發達)되었다고 미루어 보면 태권도의 도(道)는 정신련의 단련과 향상(향상)을 목표로 삼는데 그 특질이 있다.

따라서 무술로부터 태권도를 실행(實行)하였다는 것은 고집(固執)에 불과하다. 결국 손과 발로써만이 무술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술의 구극(究極)과 심오(深奧)는 사람의 정신적 차원(次元)의 가치가 상반(相反)함으로서 도달(到達)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진수(眞髓)라고 한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전통을 현재로 부터 미래(未來)로 이어가는 자세(姿勢)이다. 태권도는 평소 생활 가운데 꽃피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발견 할 수 있다. 사실 무술의 순간동작(瞬間動作)인 반사신경(反射神經)과 집중력(集中心力)은 오늘날의 교통 전쟁 중에서도 중요한 응용이 된다.

앞서 일본 체육대학 교수 초청 좌담회 석상(席上)에서 운동선수의 정신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었다. 무술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시대착오(時代錯誤)나 군국주의(軍國主義)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아무런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해방후 무도 교육의 폐지(廢止)는 청소년들의 심신 단련에 많은 지연을 초래하였다.

스포츠중에서 분류되고 있는 유희(遊戯)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가벼운 신체운동은 충분히 발달시킬 수 없었다. 이로 기인한 비만아(肥滿兒)들의 문제는 운동을 수반(隨伴)하지 못한 영양 과다(過多)가 중요 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예절 문제는 사회 교육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들의 예절 문제를 기록한 사람 가운데는 해방후 교육을 받은 각 직장의 중견(中堅) 간부가 많다. 그들이 과거 생활의 반성(反省)에서 언급하고 있다.

예절은 가정에서 교육은 학교에서라는 말은 예절 교육이 소홀(疎忽)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증거가 아닌가 느껴진다. 학생들훈련중 지도자가 실수(失手)로 매질하면 곧 폭력 교사의 대명사(代名詞)가 딱르기 마련이다. 예절은 본래 엄(嚴)한 것이며 감미(甘美)로운 곳에 초생하지 않는다. 시(是)는 시, 비(非)는 비로서 교육시켜야 한다.

해방 후 민주교육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늦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체 단련과 정신훈련이 서로 융합되어 합리적(合理的)으로 교육시키므로써 건강과 건전한 정신을 지닌 바람직한 청소년들을 지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이라 할까. 도(道)가 지닌 엄한 훈련은 가까운 생활 주변에서 부터 발견하고 실천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인간대 인간의 예절 작법(作法)은 자기 스스로 체

특하도록 하며, 청소년 자신이 엄격(嚴格)하고 고통스러운 연습에 참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극기심(克己心)과 고통에 승리하겠다는 희열(喜悅)과 인간적인 노력과 목표에 향(向)하는 감격을 구(求)하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의욕(意慾)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과거 교육은 어느 뜻에서는 인간적인 패배(敗兆)라 할 수 있다. 역설적(逆說的)으로 논거(論據)하면 과거의 민주교육은 청소년 자신의 엄격함을 본능적으로 구(求)하려는 사실에 대하여 외면(外面)하고 있었다. 태권도는 국기이다. 종주국(宗主國)의 면모(面貌)를 갖추어 국제화의 내일에 정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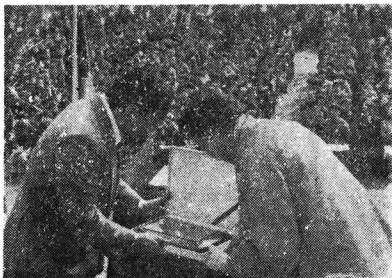
현재 태권도 교육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도복(道服)차림과 경기 규칙, 명칭(名稱), 용어(用語), 매너가 모두 한국의 형으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태권도는 국제 경기의 지위(地位)를 지속

하고 있다. 태권도의 단위(段位)는 정기를 장려하는 칭호(稱呼)이다. 이러한 스포츠문화재는 정신적인 문화재로서 21세기에는 더욱 번창(繁昌)할 것이 기대(期待)된다. 전술(前述)한 소용돌이 속에 태권도의 현대화는 무기(鬪技)경기로서 세계적으로 통용(通用)할 수 있는 가능아기를 지닌 내용의 충실성을 갖추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인다운 인간상(人間像)을 육성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태권도의 현대화는 각광(脚光)을 받게 된다고 본다. 태권도의 국제화 대중화(大衆化)는 국방력(國防力)과 직결(直結)된다. 당국은 한국 스포츠 문화재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행정(行政)의 보다 계획적인 발전안을 마련하고, 유서 깊은 무예(武藝)의 개발과 농민의 시(詩)로서 내려온 스포츠를 꽃피우므로써 국제화의 앞날은 더욱 밝아졌다고 할 수 있다.

〈토막소식〉.....〈Topic News〉

남대문 국민학교 졸업식



마지막 졸업식을 갖는 남대문국민학교의 제34회 졸업식장에서 대한태권도 협회의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시범학교로서 그동안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던 김정숙 교장을 비롯하여 장석주 교감, 안운식 후원회회장, 박대성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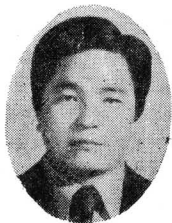
유진수 육성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송준석의 졸업생 23명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자체의 사정으로 폐교를 하게된 남대문국민학교는 그동안 태권도 어린이시범단을 육성하여 의국국민 방문 시 각종 대회에 태권도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시범을 약 270여회 했으며 해외에도 나가 국위선양을 한 바 있다.

현재 국민학교 체육교재에 4학년 이상 배우고 있는 국기 태권도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정신적 지킴이 되고 체력단련의 첨경 노릇을 맡고 있어, 어린이와 태권도는 아주 절친한 친구와 같은 친밀한 사이.

이러한 태권도 저변확대에 말없이 행동으로 기여했던 남대문 국민학교 태권도 어린이시범단에게 뜨거운 박수와 영광을 드린다.

나는 이렇게 했다



김 웅 휘

(동대문 상고 코치)

1978년도, 캘린더에 남은 마지막 장을 뜯어내면서 나는 여러가지의 감회에 사로 잡혔다. 희(喜)와 비(悲)가 엇갈리는 정말, 가슴에 벅찼던 한 해였다. 태권도 코치로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지난해는 많은 행사가 있었다. 우리는 한 대회 한 대회를 치루며, 또 다음 대회를 대비한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인상깊고 뜻있는 행사는 승리의 기쁨과 어우러져야 깊은 인상을 남기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중고 연맹회장기, 연세대학교 총장기, 그리고 대망의 대통령상사기는 잊지 못할 대회로 또하나의 기록이 되어있는 것이다. 지난 해는 이 세계의 대회에 우승을 했고 그렇게도 소망하던 국가대표선수까지를 탄생시킨 영광이 있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집착해서 이글을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영광을 위해, 우리 선수와 내가 치뤘던 고통과 어려움을 회상하며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옛말을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가혹하고 극심한 고통이 있을수록 기쁨은 더 크게 담아온다는 말. 1978년은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1976년 4월 3일 본교(동대문상고) 코치

로 부임하였다. 의외로 학생들을 코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는 균형을 이루기 힘들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격이 온순하면서도 폭발적인 십대소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코치의 어려움은 그들의 정신도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77년도까지 본교는 종합우승 한번 못해보고 종합 2위만을 고수해 오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1978년은 내게 많은 다짐과 힘을 주었다. 그땐 더구나 김상천군을 비롯한 주전선수 8명중 6명이 졸업을 했으므로, 경기경험이 전혀없는 선수들로 멤버구성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기본으로 임하기로 했다. 전 선수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갖고 무엇이든 하면 된다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필요한 것은 인내와 노력과 용기라는 말에 선수들은 결의를 굳히는 것 같았다.

그후 우리는 단합된 마음으로 동계훈련에 들어갔다. 우리에게는 쉬는 날이라고는 없었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맹훈련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다. 오전엔 기초체력훈련으로서 고등학교 선수로는 벽찰 정도의 맹훈련이었고, 오후에는 여러가지 방법의 경기기술 훈련을 감행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을 마친 후에는 간단한 식사로 허기진 배를 달래고 이곳저곳으로 도장을 찾아 변화된 분위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개개인의 동작교정 훈련을 했다. 보충 훈련까지 마치면 대개가 밤 11시가 넘었으므로, 이런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선수들은 가끔 옷이 낡길 수만은 없는 에피소드를 남기는 것이었다.

화장실에서 주저앉는다면가, 버스에서 내리려 다 다리의 힘을 잃고 쓰러지거나, 훈련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물리적인 배설을 하거나하는 가슴아픈 일들이 생길 것이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럴수록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기시든까지의 훈련은 더 늦출수도 더 나태할 수도 없이 계속 되었다.

첫번째 프레월드게임 한국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3명의 선수가 예선에 선발되었으나 최종선발전에서는 모두가 아깝게 탈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어 5월 8일 한국중고연맹회장기 단체대항전을 맞아 8체급 중 핀급 페더급 웰터급 등 3개 체급에서 1위를 하였고 반탐급 라이트급에서는 2위, 그리고 플라이급에서 3위를 합으로 종합점수 31점을 마크하여 2위의 성동상전(종합점수 22점)을 누르고 우승을 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 본팀을 위해 정성으로 보살피 주시던 윤성열부장 선생님이 감독상을, 그리고 이준걸군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등 여러모로 감사하고 감격어린 순간들을 연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7월 14일 제 3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 1차전을 맞아 플라이급과 라이트급, 웰터급의 3체급에서 선발되어 7월 21일에 프레월드게임 한국대표선수선발 최종전을 치른 결과 라이트급에서 오일남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또다시 우리는 10월에 있을 제13회 대통령하사기 단체대항전을 대비하여 여름방학동안에 동해바다의 망상해수욕장으로 훈련 장소를 옮겨 트레이닝을 했다. 그것은 장소를 옮기므로서 신체의 순응력을 기르고, 또한 함께 규칙된 생활을 하면서 선수들간의 협동·단결심을 기를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물과 모래를 이용한 체력운동은 동계훈련보다 훨씬 힘들고 효과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9월 4일부터 열린 협회장기 및 추계 중고연맹 개인선수권대회에선 대통령하사기



〈동대문상고 태권부원과 함께〉

단체전을 위해, 주전멤버가 아닌 세 멤버를 구성하여 저학년 선수들에게 경기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10월20일의 제 2회 연세대학교 총장기 전국고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또한번 7체급을 석권한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고 최종 큰 목표였던 제13회 대통령하사기 단체대항전을 앞둔 훈련에 임하였다. 나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대회는 개인전인, 주 복합경기가 아니고 5명의 단체전인 만큼, 주전멤버의 오다를 구성하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몇일 동안의 고심 끝에 6명의 멤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었다.

선봉(서부석) 전위(이준걸) 중견(김성배)
후위(오일남) 주장(조병준) 후보(병찬)

먼저 선봉의 서부석선수는 172cm의 신장에 60kg의 체중으로 쉽게 득점을 빼앗기지 않는 선수이고 날카로운 주먹에 득점력이 있어 대체적으로 대형선수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의해 기용했다. 그리고 전위의 이준걸선수는 171cm의 신장과 56kg의 날렵한 몸매를 지니고 있어 빠른 스텝과 변칙적인 공격을 구사하며 중견의 김성배선수는 170cm의 신장과 52.5kg의 체중으로 유연한 발동작을 구사하며, 후위의 오일남선수는 홍콩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KO승으로 우승한 바 있는 사실상 우리팀의 대표적인 선수로 175cm의 신장에 67kg의 체중을 지니고 있다. 주위에서는 선봉이나 주장으로 기용하자

는 의견로 있었으나 선봉으로 세우자니 뛰가 불안하고, 주장으로 세우자니 비겼을 경우 바로 최종적인 주장전에 뛰어야 하므로 무리할 것 같아 후위에 세우게 된 것이다.

주장 조병준 선수는 165cm의 신장과 56kg의 짙고 다부진 체구에 다양한 동작과 뛰어난 순발력의 선수였고, 후보의 방 찬선수는 176cm의 신장과 의 체중으로 대형선수이긴 하나 무력이 너무도 짧기에 불안한감이 있었으며, 또한 유사시 어느 선수와도 교체되어야 할 선수로는 대형선수의 잇점이 있어 후보로 세웠던 것이다.

우리의 팀 전력은 기본체력이 뛰어난 서울체육고등학교와 4연패를 노리는 화려한 팀캐릭터가 붙은 성동상업전수학교로 의식하면서 구상한 바로 그것이다.

드디어 10월 28일 대망의 제13회 대통령하사기 태권도단체대항전이 개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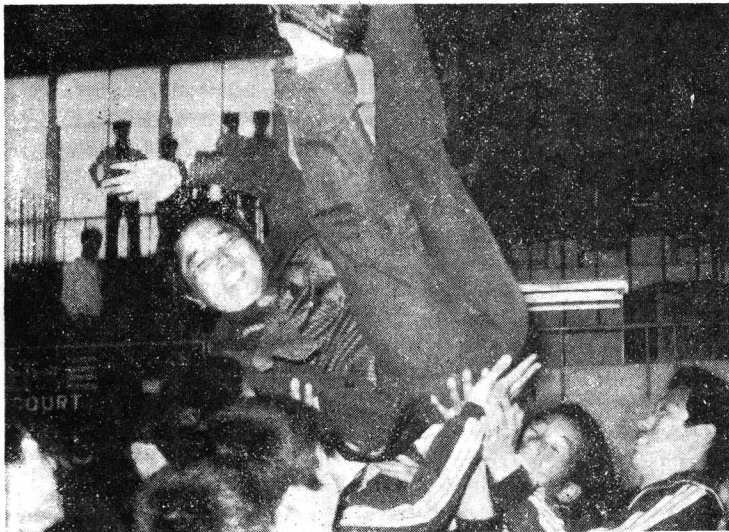
초조하고 흥분을 갈아 앓힐 수 없는 긴장 상태였다. 그토록 열심히 훈련에 임해 주었던 선수들에게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았다. 다행히 선수들의 컨디션은 매우 좋은 상태였다.

첫날과 준결승게임에서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행하여 결승에 오르게 되었는데 성동상업전수학교와의 대전은 참으로 숨막히는 열전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부딪치는 두 팀의 선수들은 그들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했고, 때문에 경기내용도 알차고 열전이었다

드디어 결승에서 승리한 우리팀은 관중들의 격려와 박수를 받으며 이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78년 한해동안 세계의 대회에 우승을 했던 우리팀은 조용히 자축을 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태권도의 미래를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다.

하던 된다는 신념과 고집감택에 대한 깨우침이야말로 내가 태권도 코치를 하는데 걸잡이가 되어준 것이었고, 나와 함께 땀흘리고 고생하기를 피하지 않던 본교의 선수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격려의 말을 나눠주고 싶다. 또한 팀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윤성열 부장선생님을 비롯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이인근 이사장님, 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하시는 전 태권도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나 또한 학생들과 함께 웃고 웃을 것을 기대해 본다.



태권도와 여성건강

박 성 희

(전 동덕여대 태권도부장·약사)

약국에서 환자를 하루에도 수십명씩 대하다 보면 환자의 얼굴 표정만 보아도 무슨 병을 앓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히 있는 증상들로 약국을 찾는 여성 환자들을 대할 때 여성들의 건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분만 도중에도 죽어야 했고 현대 여성들은 조그마한 상처에도 마구 항생제를 찾으며 병원에 입원을 해 버린다. 무릇 2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여성들, 건강한 후세를 이루므로써 국가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우리 여성들, 좌우시간에 건강 문제는 논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신혼 부부처럼 보이는 두 남자가 약국에 들어와서 상담을 요한다. “우리 부인이 곧 출산을 할 것같은데 훌륭하게 늘어나는 복부근과 자궁 근육을 수축시킬수 있는 약이나 위생용품이 없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묘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산의 위험도는 아랑곳 없이 부인의 외모, 스타일에만 신경을 쓰다니.....원 철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나는 출산후 필요한 준비물과 산모의 건강을 위한 값비싼 영양제를 잔뜩 안겨 주었다. 마지못해 값을 치루면 그 남자의 얼굴과 옆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 올랐던 그 여자의 가련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택한 태권도가 참으로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했다. 허리와 복부근육에 꾸준하고도 규칙적인 자극을 주게 될때 우리는 출산후 과대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준비 운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되었다. 수축하였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피로로 인하여 근육내에 과대하게 쌓였던 Lactic

acid(젖산)도 분해시켜야 한다. 여성이 태권도를 할때는 이처럼 충분한 준비 운동이 요구된다.

운동이 끝난후 우리는 확장된 피부의 모세 혈관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늘어난 땀구멍으로 배출된 노폐물을 곧 제거시키는 작업도 제대로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날썩혀 지는 것을 생의 소망으로 여기는 여성들은 우선 밤을 굶는 길을 택하곤 한다. 이것처럼 치명적인 건강 손실은 없는데 그 과학적인 이론을 대강 소개한다. 신체는 끊임없이 순환되는 대사 과정이 있는데 당질대사, 단백질 대사, 무기질 대사, 성호르몬 대사 각종 대사중 생성되는 산물은 우리 몸에서 필수 불가결한 물질들을 이룬다. 예를 들면 methionine (메치오닌) phenylalanine(페닐알라닌), 등 주요 대사 산물들은 단백질 합성에 체조직 구성에 아주 중요하며 Glucose (글루코즈)는 지질 대사에 원료 물질이 되고 Estrogen (에스트로겐), Progesteron (프로제스테론)등은 여성과 남성을 이루는 성 호르몬의 중요 물질인데 이는 모두 대사 산물들이다. 그런데 밤을 굶게 됨으로써 이러한 대사 작용에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똥똥하다, 살이 찐다는 것은 근육내에 쌓인 지질층중 monoglyceride (모노글리세라이드), diglyceride (디글리세라이드) 등 지방을 이루는데 인체를 해부하여 보면 근육위의 노랗게 두껍게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지질층이다. 이는 혈관을 압박하고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통로를 좁게 하여 고혈압을 일으키는 이보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신체를 많이 움직임으로써 쌓인 지질층을 활성화시켜 에너지에 보태도록 하여 살을 뺄수 있게

된다.

여성에게는 여성 전용의 체력관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됨은 사회에서 약사로써 일하고 부녀이다.

또한 신체구조, 발달된 유선(가슴)과 복잡한 자궁의 보호와 정신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여성만의 문제인 것이다.

흔히들 남성과 여성은 신체 구조가 달라서 운동도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신체 구조상 여성이 불리한 점은 조금도 없다. 다만 여성은 관습상 여성다워야 한다는 것으로 운동의 정도에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이다. 채치있는 호신술, 절도있고 기교있는 태극 폼세로써 우리의 건강을 향진시킬 수 있다면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sports (스포츠)라 하겠다.

우리는 흔히 정신 통일이 특이하게 가미된 운동으로 태권도를 상징한다.

우리 여성들은 정신 통일의 힘을 생의 어두움에 밝은 등불로 이용해야 한다.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훨씬 많이 깔려 있는 형극의 인생길에서 한번 넘어질 지언정 두번은 깨지지 않는 슬기를 우리가 배운 정신 통일의 위대함으로 꽃 피움에 더욱 아름답지 아니한가.

유단자 여성들이여, 정권 단련을 해본적이 있는가, 피가 맺히고 또 맺히도록 땀을 쳐보았는가, 돌같이 굳힌 주먹으로 치한을 쳐 부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한번씩 한번씩 때리는 순간에 우리는 생의 방향을 잡는다. 연습이 결코 없고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가식없이 순수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다짐이며 또 다짐이다.

약사 고시를 2주일 남겨 놓고 책보따리를 메고 도서관을 찾았을때 사태는 심각하기 이를데 없었던 지난 겨울, 9월부터 계속된 모의 고사를 동맹배척해 버릴 정도로 정신 없이 빠져갔던 어두운 수정, 그러나 내게는 태권도인이라는 배경과 오기가 있었다. 그렇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는 있지 않았던가.

여성은 충격적인 일이 생길때 시름 시름 눈물만 흘리다가 절이나 성당에 몸을 던져 버린다. 남자들은 술이나 실컷 퍼 마시다 곧 새출발을

한다.

그러나 태권도 유단자들인 우리 여성들은 절대로 어리석은 삶을 택하지 않는다. 체면을 쉽게 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하다. 한옥 타블를 끝내고 새로운 음정과 제이름을 짓기 시작한다. 이것이 여성의 건강의 비결이 되는 것이다. 태권도를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는가에 따라서 여성의 건강은 합수 곡선을 그리게 된다.

각 체육관의 유급자나 초보자 여성들이여, 유단자가 되기 전에 즉 Black belt (블랙벨트)를 얻기 전에는 태권도를 배운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태권도의 시작은 검은 띠를 두르고 부녀이다. 그 이전의 1년이란 태권도인이 되기 위한 꾸준한 수련과 준비 과정이라 하겠다. 마치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생의 시작과도 같은 의미이다. 그러면 체육관에 입관한 많은 여성들은 과연 어느 정도 얻은 몇개월부터 게을러지고 체육관을 그만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중간에 자퇴나 퇴학을 당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속스럽고 발차기가 남들보다 서투르고 멋이 없고 기압 소리가 나오지를 않더라도 꾸준히 서두름없이 수련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배 언니, 선배 사범님들은 그 당시 우리 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셨지 않은가 내가 잘알고 모시는 여자 사범이신 K사범을 찾은 적이 있다.

10여년 전에 체육관은 지금처럼 건물이 아니고 천막으로 되어 있을때 여자가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하니 마치 동물원에 원숭이처럼 당신을 여기더라고 하시며 여성 태권도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생의 목표라고 하셨다.

각 도장의 여성 유단자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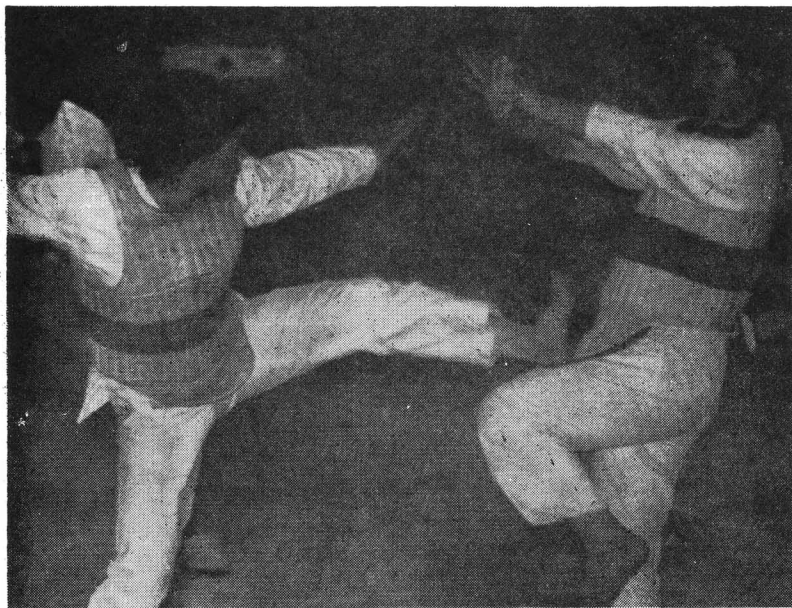
우리는 여성의 지도자들임을 항상 잊지 말자 우리에게는 선배와 후배들간에 풀음해야 풀음수 없는 것이지 않는 굵은 끈이 매어져 있다. 유단자가 되어 체육관 사범이라는 직업을 택할 필요는 없다. 하루 하루를 영위해 갈때 우리의 기본 대들보는 태권도 정신으로 단단히 단장해 놓자는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 정신으로 낡은 벽을 헐고 꾸밀 줄 아는 현명을 간직하자. 남성들에게

이 꼴됨을 당하지 아니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담겨주는 데이 있는 우리 여성들이 되도록 노력하자.

몇몇의 여대생들은 태권도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 대학의 태권도부원들의 성실함 활발함 그리고 건전한 면학 정신을 자신있게 자랑하며 그네들도 태권도를 널리 씨앗뿌려 선택된 여성의

지도자로 군림하길 원하며 활발한 여성의 교류를 그네들보다 한발 먼저 사회에 던져진 나는 바라고 원할 뿐이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할때 우리의 신체를 튼튼하고 매력있고 살아있는 피부를 자랑할 수 있으니 이를 태권도가 실로 여성 건강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된다고 자신있게 글을 맺는다.



여성들의 정신속엔 늘 자유의 원소(原素)가 활동하고 있다.

여자들은 날마다 그 세계관(世界觀)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의식치 않는다.

여자들은 아침이 오면 어린애들처럼 일어난다. 낮에 쌓아올렸던 사상체계(思想體系)를 저녁이 되면 느닷없이 무너뜨린다.

오늘의 신조(信條)가 나뒀다면, 내일은 최선의 신조를 가질 것이다.

—하이네—

이태리 여행에서

李 (구스타프 트리아우 주재사범)
京 (국경도시)
明 (솔위원장)

사실로 여행은 즐겁고 뜻깊은 것이다. 가슴설레이는 기쁨과 기대가 떠나기 전 날 밤잠을 설치게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탈피, 그 단조로움을 훨훨 털 수 있는 기쁨이 그것이요, 미지에의 동경, 낯선 풍물에, 정감에, 그리고 언어에 젖어보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다.

가깝고 먼 곳의 거리감을 잊자. 그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슬한 새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벌써 10여년 가까이 흐르는 세월동안 알프스 산록 인스부룩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여행하는 기쁨을 많이 가졌다. 여행을 위한 여행길에 나선 예보다 직업상의 용무로 해서 덜어 덜어 맛본 횡 수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몇 년 전 만해도 각종 대회가 있을 때 마다 구주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범들로부터의 요청으로 이곳 저곳을 자동차로, 때로는 기차로 가기도 했다.

국경을 넘으면 새로운 풍물에 접하게 된다. 진축양식, 국민성, 그리고 언어는 물론 人情이 각각 다르기에 그 상이성에서 오는 신선함이 나를 못내 기쁘게 해준다.

인스부룩에서 38km 남(南)으로 가면 해발 1,371m 산악고지에 이태리(Italy) 국경도시 브렌너(renner)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은 온통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가죽제품의 의류, 신발, 섀터, 각종 포도주 그리고 신선한 청과일이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자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함은 그 값이 싸기 때문이다. 값이 싼 점에 비해 물품을 고르는 감식안이 조금은 있어야 제대로의 양질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에누리할 줄 아는 능청과 끈기가 있으면 더욱 좋은 법이다.

이태리 사람들은 수다스럽다. 좋은 말로는 낙천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을 밥 먹듯 잘 하기에 더욱 조심할 해야 한다. 자동차 여행을 해 본 사람이면 한 두 번 좁은 경험하게 되는 사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어서면 뒷자리 청년이 차가 멈추기가 무섭게 달려와 10원지기라도 만만듯 받기하 인사를 건넨다.



아시아 사람을 보면 의례히 일본에서 왔느냐고 반색하며 훑친 오메가시계—그 실은 가짜—가 있는데 싸게 팔더니 사라고 유혹한다.

유명한 관광지일수록 좁 도록은 더욱 많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물품을 뒀다하면 그것은 그비들의 재물이 되는 것이다.

이태리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먹고 마시고, 노래와 춤을 즐기는 국민이다. 풍성한 자연미와 역사적 유물을 근거로 사는 탓엔가 게으르기도 해, 걸릴하면 노조파업이다.

또한 물고기의 생티마냥 자동차를 몰 때도 비참하다. 그리고 적당히 적당히 추월하는 재미를 즐긴다. 특히 로마나 나폴리에서의 운전행패는 악명이 높다. 여행자가 자동차 여행으로 로마나 나폴리에서 자동차 어느 한 모퉁이라도 부딪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운전 솜씨를 인정해 준다는 속 말이 있다.

나는 여행길에서 가는 곳마다의 풍물이 담긴 그림엽서에 간단한 답부를 전해보는 기쁨을 가진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호텔 카운터에 의뢰하면 요금은 챙기고 그래서 편지는 불통이 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태리 여행길에서는 우체국에 가서 손수 부치는 경성이 아쉽다.

그렇다고 이태리 국민은 전부가 나태하고 사기꾼일 수는 없다. 구라파의 어느 국민성과는 다른 부침성과 후한 마음 씀씀이 있어 좋은 면도 있는 것이다. 또 그런 국민성과는 대조적으로 고속도로 연변에 펼쳐지는 5월의 전원 풍경이 좋으며, 파릇파릇한 포도밭이 인상적이며, 새빨간 정염을 토하는 사루비아 꽃은 선정적인 여인의 미소같이 이글거린다.

낮은 산이 많고, 그 신세며 산야에 나무 없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친근감을 갖게 해준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으로 더욱 유명해진 수상(水上)도시 베니스는 역시 이태리

의 명물이다. 10년에 1센티씩 가라앉는 지반이라 해서 침전하기 전 봐야한다고 해마다 관광객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운하와 다리로 시가는 이루어져 있고 모우터 택시 및 버스가 분주히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아직도 곤도라가 있어 운치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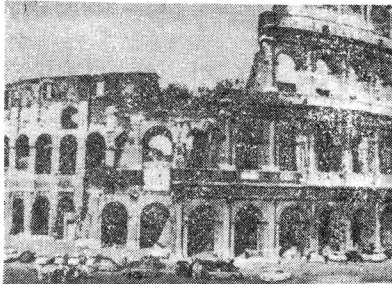
1,500년에 완성된 베니스의 수호신 마르코를 모신 상 마르코 사원이 베니스를 지켜준다. 베니스에 오면 의례껏 곤도라의 낭만을 만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그 대절요금이 일정치 않아 걸하하는 제주를 부려야 한다.

배를 타고 축제를 벌이는 버니스의 음악제는 민속축제로 전통을 있고 세계의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시원할 광장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인간의 물결인데 여기에 한 몫기는 비둘기 무리가 먹이를 얻기 위해 반기어 준다. 그 광장을 지나 뒷 골목에 들어서면 준비한 음식점에서 풍기는 생선요리 냄새와 스파게티가 식욕을 끌구어 준다.

이태리 여행에서는 어더를 가나 古代의 찬란했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그 빛을 바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로마는 세계 종교의 심장인 바티칸의 교황청이 있어 외롭지 않음은 순례자의 행열이 밋을 날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오페라 대사를 의우듯 이태리 말은 억양이 높는데 그 높은 억양만큼 이태리처녀들의 꿈은 결혼하면 너도나도 모두 「돌아오라 소렌토로」라는 가곡속의 소렌토로에의 밀월여행이다. 그만큼 소렌토는 꿈과 낭만과 美가 조화를 이루며 난무하는 도시이고 게다가 나폴리해변의 저녁노을! 그 지중해의 잔잔한 바다 위에 태양이 지는 황혼의 정경은 한쪽의 수채화임에 틀림없다. 그 한쪽의 수채화를 지켜보노라면 시적인 감흥이일고 학창시절에 배운 「산타루치아」며 「오솔데미오」의 선율이 살며시 입술사이로 스며 나온다.

이렇듯 굳이 여행에서 아름다운 풍경만을 찾



지 않아도 좋겠다. 기차를 타고 차창밖의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자. 시골풍경이란 뭐 그렇게 훌륭한 것만은 아닐테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의 변화를 보고 있는 것만도 즐거운 것이다.

여행에서 얻는 값진 것은 그 과정에서 진실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즐거움에 있다. 낯선 곳에서의 생소함이 다소는 외로움을 안겨다 준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듯 떨어져 있어야 그리움을 알게 된다.

그 그리움 속에서 천우의 우정음, 고향에의 향수를,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느끼게 된다. 어떻게 보면 여행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의 지

기자신을 찾아가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즐거움은 시작적인 아름다움과도 가깝고 먼곳의 거리감과도 크게 상관없다.

여행에서 진실로 자기자신을 발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여행은 단조로운 생활에 리듬을 불어 넣어주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활력소가 되어준다.

사실로 여행은 즐겁고 뜻깊은 것이다.

(1979. 2.1)

李 京 明

<토막소식>.....<Topic News>

강남지역의 도장 인가방침 완화

그동안 1個洞 단위의 1個 道場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방침으로 인하여 江南地域에서는 많은 跆拳道場이 跆拳道와 유사한 수박도, 합기도 등으로 변칙인가를 받음으로 변칙적인 태권도장 운영의 問題點이 발생되었었다.

이에 本會에서는 단체등록을 필한 태권도장만을 시교육 위원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 일사 불란한 행정체계하에 일선도장을 통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태권도장간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태권도장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사범과 수련생간의 충분한 인간애와 올바른 지도방향울 제시, 태권도장의 면모를 세신하는데 출산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한 건의 사항은 첫째, 1個洞 단위에 1個道場인가에 대해 人口比例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자격이 구비

된 도장에 대하여 제한없이 인가해 줄것을 건의했고 둘째로는 시인구 본산체에 따른 江北지역의 도장인가 증지에 대해 國技 跆拳道는 安保體育, 國民體位 向上, 국력부강의 요인이 됨으로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되도록 선처가 있길 건의 했다.

이러한 건의사항에 따라 시교육위원회에서는 첫번째 건의사항인 강남지역 도장인가 정책 완화건에 답변, 시설설비가 합당한 도장에 한해서는 제한없이 인가할 것을 결정했고 본회에서는 계속 강북지역의 인가억체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단 도장간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 도장 단체등록규정 제 3조 1항에 의거 기존가맹도장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신규설치는 가급적 삼가하여 줄 것도 아울러 시달한 바 있다.

판암대회를 마치고

전 용 하



본인은 1978년 9월 23일부터 금일 25일까지 열리는 제 1회 판아메리카 태권도 선수권대회 심판원으로 초청을 받고 9월 10일 JAL기 오후 1시편으로 고국을 떠나 일본(하네다)공항으로 향하였다.

한국에는 멕시코 대사관이 없고 대리대사관뿐이어서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하네다 공항발 13일 오후 2시에 캐나다(밴쿠버)를 거쳐 멕시코로 가는 편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

비자를 받기 위하여 일본에 있었던 3박4일간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형편에서 민단청년부에 계신 정용석(전 태권도 협회 총무이사)씨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하네다(일본)을 떠나 캐나다(밴쿠버)에 도착하니 2~3일 후면 멕시코의 국경일이라고 하여 중공군장성 5명등 20여명의 그들 일행과 같이 탑승하게 되었

다. 세계 제일의 반공국가의 국민으로서 야릇한 마음 금할길이 없었다.

목적지인 멕시코에 도착하니 그곳 C.I.A 직원 이 마중나와 있었다. 안내를 받고 문대원 사범이 운영하는 멕시코 태권도 중앙도장에 도착하여 그곳의 여러 태권도인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모두들 친절한 인상이었다.

그들이 나를보는 눈은 태권도 종주국의 심판관과 문대원 사범의 스승이란것으로 모두들 친절히 우러러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문대원 사범은 대회준비 관계로 동분서주하는데 본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도와주지 못함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몇일이 지났다.

대회 2일 전에는 그곳 T.V에 초청을 받고 약 80분간 태권도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는데 북성(알리)중계 도중에 우리의 인터뷰시간을 갖게해

준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길 없었다.

또한 우리 대사관에 인사차 갔을 때 그곳 직원들도 우리를 반가히 맞아 주었으며 태권도로 인한 국위선양이 엄청 나다는 칭찬이었다.

그에로 멕시코 City에 있는 태권도 관원들은 전원이 태극기와 태권도 뺨지가 새겨져 있는 그림을 자기차 앞, 뒤로 붙여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 태권도 가족이란것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이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자부심과 태권도인 이란 긍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곳 가라메는 25년의 역사와 전국 200여개의 도장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태권도의 역사는 겨우 10년으로 40여개의 도장 밖에는 안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가라메 도관이 내러지고 태권도 간판으로 바꾸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가슴쿵쿵함을 느꼈다. 그간 문대원 사범이 닦은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나 짐작이 가고 참으로 대견스러운 마음이드는 것이었다.

9월 19일부터는 각국의 선수들이 도착되었다. 미국 선수들이 도착하면서 심판교육 문제가 대두되었다. 미국(와싱턴)에 있는 대학교 체육과 교수 민모, 양모등 교수가 AAU의 임원으로서 미국팀을 인솔하였으며 AAU 부회장님도 같이 참석하여 대회에 실감이 나는 것같았다.

20일부터는 각국 교사 1개국에 2~3명씩 진출하여 심판교육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것인가 했는데 민교수가 국제심판복장을 착용하고 능숙한 영어와 숙달된 시범으로서 이론적으로 고차원적인 교육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분 민교수가 어디 출신이며 얼마나 태권도를 한 사람인가 알았을 때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도 대학출신으로 미국에서 유도로서의 진출이 어려워 태권도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심판교육이 끝나고 경기일인 23일이 다가왔다.

대회장은 우리나라 장충체육관보다 3정도 더 큰 체육관이었다.

경기전에 각 메스콤에서는 서로 다투워 보도

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였으며 T.V 방송국에서만 3개 사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고 매일 시작시간부터 끝나는 3일간 계속 중계하고 있었다.

참가 예정국은 20여개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각국사범(한국) 비자문제가 즉시 즉시 처리되지 않아 비자가 늦어 짐에 따라, 주체국인 멕시코를 비롯하여, 코스타리카, 에콰도, 엘살바도, 파테말라, 미국, 콜롬비아등 11개국에서 참가하였다.

더욱이 이 대회를 빛내주기 위하여 김운용 세계 연맹총재께서 참석하여 능숙한 스페인어로 축사를 해주어 그곳 임원 및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심판문제는 3일간 교육을 시켰으나 미비한 점이 많아 배심에 앉아있는 본인과 민교수가 거의 승패를 결정하였다.

주체측과 미국 AAU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배심자리에 앉고보니 그 책임 당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어려웠던 점이라면 주최국 멕시코와 미국의 실력의 차가 종이 한장차이라서 신중을 기해야 하였으며 멕시코 관중들의 열렬 응원으로 더욱 피로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3일간의 경기일정 동안 심판도 물론 최대한의 공정을 기하였지만 1건의 항의도 받아본적이 없다.

이런 경기태도는 중주국인 우리부터 크게 본 받아야 할점이란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렇게 경기를 치루고 금 5개를 차지한 주체국 멕시코 1위 금 3개의 미국이 2위 코스타리카 3위 등으로 경기를 성대히 끝맺을 수 있었다.

그곳에 여론을 들어본주 가라메 시합도 수차 있었으나 선수의 부상, 항의 등으로 관중의 비난을 받아왔으나, 태권도 경기에서는 1사람의 부상자나 1건의 항의도 없어 대 성공이라는 경이었다. 느낀점이라면 체육관에 들어가보니 그 예의 바름이 중주국에서 간 본인이 부끄러우리 만큼 엄숙함을 느꼈고

운동에 임하는 자세에서는 모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역력하였으며

그간 문대원 사범이 정열을 쏟아 태권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종주국에 한 사람의 고단자의 입장에서 총평을 한다면

태권도 하는 “도”의 의의를 살려서 실력 이전에 정신적인데에 중점을 두고 기술적인 문제도 이제는 한발울 땅에 닿은 상태에서는 평준화된 것 같다.

앞으로 몇년 후에 올림픽 종목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들어간다 치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일본의 유도 종목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 걱정이 되며, 현재 도복이 바뀐다는 것은 좀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히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나 좀더 연구하여 선수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되겠다.

유능한 인재는 연령이나 무력은 뒤로 미루고 연구검토하여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게끔 뒷바침이 있어야겠다.

끝으로 현재까지 태권도의 발전상은 눈에 띄이게 현.김운용 총재님의 탁월하신 힘으로 이루어진것은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느끼며 앞으로는 우리태권도인 자신이 더욱 더 분발하여 종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세를 정화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다.

기술적인면으로 한발이 땅에 닿고 한발로 공격하는 현재의 기술은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양발이 뜬 상태에서의 공격이 특점을 할수 있겠다던가 손으로의 상반(목위)부분을 방구를 착용하고서라도 공격을 할수 있게끔 해야되겠고 예를 들자면 5가지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사범에게는 3~4가지의 기술을 습득시켜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태권도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를 하자면 우선 경제적인 뒷 받침이 필요할 것 같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살며,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상으로 당신을 사랑하길 바라고 있는가?

당신의 이 바램을 충족시킬만한 상태가 꼭 하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남의 행복 때문에 살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상으로 남을 사랑하는 상태이다.

그런 경우에 비로서 당신도 다른사람도 모든 사람에 의해 사랑을 받고, 당신도 다른 사람도 다 함께 당신이 바라는 그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보다 더 남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서 당신의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 함께 살아있는 존재인 당신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상으로 남의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技術審議會任員名單

議長 裴 永 基

1979年度

副議長 李 炳 路 金 寅 錫 李 教 允 李 龍 雨

分科委員會	分科委員長	分科副委員長	分 科 委 員					
審査 分科 委員會	최 남 도	김봉기 고철성 백학제 김영자	이상연 김정인 이남호 신인철 유문규	장기승	강신익	김재규		
審判 分科 委員會	김 순 배	이 영 근 이 상 달 백 수 남	김춘근 최돈오 오영진 박경선 이부용 김용길 김석환 장남용 한만규 이규형 김광배 김교준 서용암 신흥구 이재호	박종명	이종찬	한상진 김진위 김관선 김동범 최준배 김종섭	전관선 조한우 양성박 장순열	
競技 分科 委員會	곽 병 오	최경대 김용휘 이규서	최국환 이석환 이병훈	김 철	이영환	박용국		
教育 分科 委員會	박 해 탄	이규정 홍정부 임춘길	고국한 임현장 김조용	남종국	노영일	오홍복		
研究 分科 委員會	임 순 호	우필옥 진덕영 김상하	최길현 이정용 임택중	김정기	이종문	김종길		
賞罰 分科 委員會	이 승 완	이완기 문한중 김종익	유백만 이영세 김강인	한효봉	신우철	최정도		
編輯 分科 委員會	김 재 기	유수용 지희용 문창남	최석철 구정도 강국형	배동승	전창식	조준호		
國際 分科 委員會	김 용 서	송봉섭 주계문	박재수 허 영 전중오	유현묵	홍재학	김형빈		
企劃 分科 委員會	신 장 식	박부철 안희균	최종수 전성환 김종찬	김창호	박현섭	김대식		
派遣 分科 委員會	김 호 제	이영철 김건환 박강열	이규현 서광희 강종만	이영덕	심재익	이기형		
弘報 分科 委員會	이 태 성	전재규 강영복 송용석	김영삼 노부귀 김철호	이석원	윤홍열	고성훈		
示範 分科 委員會	권 경 욱	유승선 서중근 신재도	별도 구성					
道場管理分科委員會	안 영 백	이병규 허지희 김대연	권호일 오합숙 조경진	정경덕	정순규	나종열		

휴게실에서 잠깐만

—동대문상고 태권도부원들과 함께—

땅이 녹아 운동장은 질척했고 가장 먼저 봄이 강도한 듯한 교정이었다. 4층의 넓은 강당에서 펍을 치며 수련에 열중이던 학생들과 휴게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창문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난로결에 둘러 앉은 학생들과 사범은 형님같이 동생들처럼 친근해 보였다.

코칭과 수련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자 윤 성열 태권도부장 선생님이 팔뚝을 열었다.

“제가 태권도를 배울 때 하교는 그 태도나 형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해오고 유지되는 것은 코칭과 수련생, 그리고 수련생 선·후배간의 예의겠지요. 일단 무도인이 되었다면 자기의 생활도 무도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징크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무도인들간의 예의라든가 현실이 현실이니만큼 희박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요와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바람직한 예의라고는 할 수 없고, 좀더 따스한 인간애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본교에서도 태권도 부원들에게 정신과 육체의 수련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조금쯤은 엄격한 규율아래서 코칭과 학생들간의 호흡이 유기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지요. 또한 아직 수련생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레벨에 따른 규율로 코칭의 의도대로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마 전년도 78년엔 삼관왕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

각되는군요.”

부장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우선 어떤 대회 의 승패에 앞서 운동선수 자신의 정신적인 수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으며, 곧 그 수련은 자기의 생활태도를 옮겨 갖는 지표가 되고, 하면 된다는 신념아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인격의 소지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어 김용휘 코치는 덧붙여 말하길....

“우선 지도하는 입장에선 선수들의 고충을 이해해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윤성열 부장께서는 가장 성실성의로 태권부를 이해하고 믿어주십니다. 모교에서 예전 학교생활 당시 태권도를 몸소 했던 분으로 선수와 지도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시기 때문에 교내활동이 안정되고 성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교에선 원칙으로 태권부원의 평균 학업점수를 70점 이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를 겸비한 인격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도로 이뤄진 원칙이기도 하지요. 예전엔 다분히 제자의 맹종을 요구했지만 현재에는 지도자의 수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동안 경기와 학생의 신분에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알고 깨우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실히 임함으로 나아가서는 태권도의 세계화와 백년대계에 이바지할 역군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곧 저의 바람이고 제 일의 의미이겠지요.”

동대문상고의 교훈은 <자활·근로·협동>으로 개개인 독립심을 기르고 성실히 생활하며 서로 돕는 태도를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하면 된다」는 본교 이사장의 말씀에 따라 용기와 의지로서 자기의 일에 임함으로 그 기적적인 실현을 뿌듯

한 감회를 맛보는데, 그 중에 78년도의 우승실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영광의 결실로 인해 더욱 새로운 결의와 희망을 갖게 된 태권도 부원들은 더욱 활발히 수련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휴게실에 잠깐 들리셨던 교장선생님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운동선수임과 동시에 공부하는 학생, 즉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사람으로 커를 것을 바랄 뿐이라고 확신있는 어조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이어 학생들에게 평소에도 갖고 있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이 기회에 살짝 귀뜸해 달라고 하자 “여기 계신 사범님이나 부장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고요”하며 아직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사범님의 뜻을 전력으로 따를 뿐이라고 대답했다.

진로 방향을 묻자 전년도 국가대표선수였던 오일남선수는

“태권도는 스포츠인 동시에 무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만 충실히 심신을 단련하는데 노력하고 싶으며, 앞으로 당면한 문제로 대학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친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고교 태권도선수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희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대학진학을 해서 자기 전공을 살리며 무도인으로 후배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싶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배우는 학생의 입장임으로 모든 옷 선배들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동대문상고의 평균 태권도 부원 진학율은 80%. 각 대학교 체육과에 진학하거나 일반학과에 진학함으로써 자신의 소질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대학진학에 대한 편견과 강박의식이 아주 없는 바는 아니나, 그것으로 다른 학생들처럼 소심해지고 불건강하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주장 전통연선수는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2년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태권도부 삼학년 형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권유라기 보단 제가 하고 싶었겠지요. 그전에 복싱을 좀 했었는데 복싱과 태권도와는 실질적으로 다르고 또 태권도는 전신운동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사

실 힘들었어요. 디스크초기를 앓을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태권도가 훨씬 심오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희망도 대학진학을 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고 싶으며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동대문상고내의 태권부는 특별활동의 일부로서 특기생으로 선발 입학한 학생과 새로 호기심을 갖고 입단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지는데 매개 졸업전에는 단을 단다고 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라면 선 후배간의 엄격하고 동시에 우애어린 규율. 그리고 친우간의 우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과 어려운 훈련에 모두 잘 적응하는 정신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부장 선생님은

“겨울방학동안 동계훈련을 했지요. ‘말하자면 군대식 유격훈련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견뎌준 학생들이 참 대견하고 그 힘든 훈련을 계기로 선수들간에 우애가 더 돈독해지고 모든 일에 자신과 의지가 심어지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이어 김용휘 코치는

“이탈하는 사람없이 감행된 동계훈련에서 나와 학교와 국가의 목적이 일치된 의식으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동계훈련에 대한 어려움에 선수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은 새로운 멤버들로도 우승을 했던 전년도 형들의 결과 때문인 것 같았다.

배영식 선수는 중학교 때 몸이 약해서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동대문상고의 태권부에서 듣고 느낀 것은 규율의 엄격함이었다고 한다.

“형들이 무섭고 어렵고 해서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어려움을 참고 견딘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었는가 알 것 같습니다.”

배영식선수는 1남 1녀의 남매로 누나도 태권도를 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호의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또한 이제 수련기간 5달이 접어든 이동호선수는 매우 많은 느낌을 갖고 수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야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공부나 하려고 했는데 주위의 권유가 있었습시다. 그래서 시작했지요. 아버지와 상의도 했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어요. 지금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원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졸업한 선배형들간의 관계가 매우 엄격하면서도 참 따뜻하고 좋아요.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의 선배들은 졸업후에도 자주 찾아오며, 후배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무도정신의 성장을 기본으로 선수이기전에 인간이 되라는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한다.

선배들이 이룩한 전적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굳게 단합된 선수들은 각자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다.

오일남 : 태권도는 개인 운동이지만 단체운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안되지요. 따라서 단합된 실력향상이 필요합니다. 유격훈련형식의 동계훈련은 매우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했거든요. 나중엔 담력과 인내력과 용기가 생겼고 분위기도 패기가 넘쳐 있었습시다. 꼭 그런 정신으로 모두 운동을 한다면 선배들의 전적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요.

권동연 :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후배들에게 영광된 자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조관영 : 3관왕에서 그치지 않고 4관왕이 될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배들은 오관왕이 될 욕심을 갖고 노력하겠지요.

주본경 : 10일 말에 주장인계식이 있는데 78년도에 주장 인계식에서 형이 그러더군요. 모래가 되지 말고 찰흙이 되어라. 규율때문에 나쁜 말로 이가 갈리고 어려웠지만 형들의 단합을 거울삼아 이해가 갔고 의욕이 생겼습시다. 율해도 틀림없이 우승을 획득할거예요.

김준성 : 멤버로서의 자부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듯이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대문상고의 코치와 수련생들은 매우 일치된 목적의식과 생활방식으로 똘똘있는 것 같았다. 승부보다는 평소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는 성취의욕을 주지시키며 평소부터 실기와 실력과 이론을 병행해서 정신지도를 개입시키고 있다고 한다.

언제나 자신이 짊어진 책임에 성실하고 동료간의 우애가 더욱 두터워지길 빌며 이제 서넛으로 기우는 햇살을 마주하고 긴 운동장을 빠져나왔다.

—편집실—

〈社 告〉

○—독자 원고 모집—○

跆拳道誌를 꾸미는데 讀者의 原稿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종 류 : 論文(태권도 발전을 위한 內容 수필, 시, 수련기, 콩트, 단편소설.)
2. 방 법 : 200자 원고지 20매 내의. (단 論文과 단편소설은 매수 제한 없음).
3. 보내실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 협회 편집실.

※ 벽지나 도서지방의 학교소속도 기다립니다.

禮儀와 秩序

人間은 社會的인 動物이라고 했다. 이 말엔 人間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으리라 생각된다. 衣·食·住 生活을 비롯하여 한 사람의 환경으론 家族, 親知, 親舊 등 人間관계 또한 중요한 社會的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人間의 社會的인 生活엔 하나의 秩序와 均衡이 필요하며, 이러한 秩序로서의 均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게엔 물론 한사람 한사람, 個個人的인 협력이 필요하다.

대중이 社會를 이끌어간다는 것과, 個人이 社會의 一員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서 人間은 작게는 가족이라는 단위에 소속되고, 크게는 국가라는 단위에 소속되기까지 이루어지는 位階秩序의 확립이 그 첫째 요건이 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물질적인 것보다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人間으로서 배우고, 가르키고, 다스리고, 순종하며, 돕고, 협조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의 생활 精神을 키우기 때문이다.

다만 自己의 個性과 哲學을 고집하기 보다는 융화시키며, 生命은 무릇 절대치의 價値를 갖고 있고 神앞에 平等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독선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現代는 個人主義 實用主義의 풍토가 조성되고 자기만의 安存을 위해 극도의 利己心을 갖고 있어, 점점 참다운 禮儀가 희소해지긴 하지만, 한번쯤 이런 구절을 떠올릴 法도 하다. 동양의 古有한 哲學思想인 儒敎의 실천도덕에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있다.

삼강(三綱)은 父爲子綱, 君爲臣綱, 夫爲婦綱으로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아내와 남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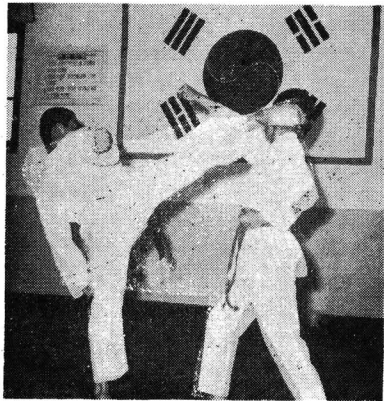
이의 멧뚝한 도리를 말하고 있고, 오륜(五倫)은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친애, 임금과 신하간에 의리, 남편과 아내간에 분별, 어린아이와 어른간의 순서, 친구간의 믿음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古來의 東洋의인 교훈으로 現代에도 결코 소홀히 흘러버릴 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다소곳하고도 충직한 位階秩序가 잘 이루어지는게서 安定되고 훈훈한 人情美가 늘 우리를 따스롭게 할 것 같다. 또한 여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복음서인 西洋의 종교, 성서의 한구절을 생각해 보아야겠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은유하며, 투기하는 썩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누구나 실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一生은 평화로울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現實이기도 하므로 이런 구절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자각하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살아가는 한 목적과 희망과 善意의 행동규범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자기의 精神을 살찌우게 하며, 함부로 권태나 외로움이나 무의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일에 전진전력으로 몰두하고 사랑해야 할 일이다. 詒掌道人으로서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自己自身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던가?

우리는 우리가跆拳道人으로서 자기의 使命을 충실히 이행했던가?

汎國家의인 차원으로 올라서서 이제 세계의 올림픽광장으로 발을 디디려는 오늘의跆拳道를 위해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일까?

배우고 가르치며, 우리가拳道의 세계에서 숨쉬는 동안 혹시 서로를 불신하지는 않았던가.

全跆拳道人 한결같이跆拳道를生活化하고科學化하여 안보체육으로서 心身을 단련하여 스스로 지혜와 의로움으로 진정한社會生活에 참여하여, 조국근대화에 적극적으로 그 일익을 담당할 책임이있다.

「없는것이 나은 사람. 있어도 없어도 좋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중에서 물론 누구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원할 것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직분을 알고 그책임을 충실히 하고 묵묵히 행할 때 객관적으로 판명되는 것으로, 좀더 완전히 자기의 소속체계를 갖는다는 뜻도 된다.

跆拳道人으로서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속에 대한 애착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韓國의 古有 武道인跆拳道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특히 신라의 화랑들이 心身을 정화하고 수련하는데에 이 武道를生活化했다. 그리하여 숙원인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오랜 역사와 깊은

愛國愛族의 哲學이 깊은跆拳道를 계승하여 전달할 우리들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까운 예로 사범단 수련생간을 생각해 봐야겠다.

한사람의 사범은 다만技術만을 가르키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의 심오한哲學思想, 知德 體전부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스포츠에서 보지드문 선후배간의 경우와 신의가 유달리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자신의 육체와 부분을 움직여 방어와 공격과 호신의 날카로움을 배우면서 또한 쉬 흠어지기 쉽고 쉬 소홀해지기 쉬운 인간관계를 바람직한 믿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지만 사범이 보여주는 행위의 모범됨에 감동을 받고 수련생이 늘 자신을 반성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며, 진진하고 발전적인 인간상으로 변모하는데에 혹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단순히 뛰어난 기술만을 중시한다면 우리가 함께 흘리는 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하여 어느새 사범은 다만 강제적인 군주처럼 수련생을 다스리고, 수련생은 은밀한 불신과 역모를 꿈꾸며 다만 고개숙이는 습관에 길들여지거나 않는지의 의심스럽다.

많은 분들이 말없이 또는 행동으로 진정한 애정을 「태권도」에 쏟아 붓고 있는데, 「진정한 애정」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여 먼 미래, 범세계적인 태권도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사람의 수련생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한가지 동작에도 온 심혈을 기울이는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아온 터이다. 그들은 한사람의 수련생일지라도 그대로 하나의 人格으로 대하며, 앞으로 태권도 백련대계를 이어받을 일원으로 충분히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사람의 수련생은 사범의 깊은 人間性에 늘 따뜻한 위안을 받으며, 하나 하나의 동작을 익혀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 태권도의 精髓과 태권도의 미래를 이어받는 것이다. 이런 관계의 선후배에게 배신이나 미움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관계의 질서에선 반목과

다툼과 불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가지의 문제들로 개인적인 생활의 위협을 받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간혹 자기의 안전에 급급해지는 경우이다. 사람은 사실 약하고 개인적이기가 더 쉬우므로, 안전과 유익에 애착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런것 이전에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도 있지 않을까?

더불어 함께 산다는 일엔 그리하여 감정의 절제와 인내와 참는 것이 필요하며 자기의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며 명예와 위신이기 이전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태권도 곧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할 태권도에서 모든 人間生活의 모범된 禮儀와 秩序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차츰 이나라의 국민생활을 정착시키고 전세계의 풍조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지도 모르는 일이다.

늘 반성해 보자. 남의 잘못을 과장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미워하기전에 우선 늘 자신을 반성하고 정신수양을 하자.

용서받기 보담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기 보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태권도인들의 가슴속에 빛나는 사랑과 막스함이 밀알처럼 심겨지길 바랄 뿐이다.



各界 各層의 國民 모두가 한 사람도 뒤지는 일 없이 國家建設에 기꺼이 參與하고 다함께 땀흘려 일하는테서 時代의 使命을 느끼고 보장을 찾는 時代입니다. 그리하여 豐饒한 高度産業社會속에 人情과 義理가 넘치는 福祉社會를 기원코 建設하자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신년사에서—

詩



義롭고 의로운 영혼

金 建 中

(대호문태권도장사범
한국무협성남지부회원)

횡으로 가른 춤

검붉고 끈끈한 호름

얼얼한 아픔 또 다른 아픔

고랑지는 주름살

武를 펼친 것 만큼이나

일렁이고 있다.

다들 잃어 버린 채,

구겨진 도복

해진 검은 띠 동여매고

무형의 터널 속을 헤메었던

공간을 가른 십여년

복받치는 설움

스산한 바람

義롭고 의로운 영혼은 싫다 아니 했으니

먼 훗날 까지

흰 무명옷

검은띠 아니 벗으리라,



<詩 作 메 모>

개관 7주년 연무시범을 마친 뒤 붉은 벽돌을 내지른 나의 주먹은 선혈로 뒤범벅이 있었다.

피를 토한 아픔보다도 더 진하게 폐부 깊숙히 파고드는 아픔이 있었으니 그건 지금까지 겪어온 사범 생활 십여년 속에서 얻은 일종의 의로운 아픔이었다. 그러나 그건 아픔이 아닌 義로운 즐거움이 맞을 수 있는 진한 양감 그것이었다.

끝이 없는 武의 世界!

나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서성이고 있는가 되돌아보지만 아직도 무형의 터널속에서 헤메이는 미야.

진실속의 선인, 나의 스승님 선배님들이 남겨 주신 태권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발고랑같이 움푹 파인 주름살을 가진 K선배님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무한한 친근감을 느끼며 가끔 이제 도복 벗을 때가 됐습니다. 해본다 그러나 K선배는 싱그레 웃으며 악수를 청할 뿐.....

내 어이 K선배의 손에 배인 막스함을 잊을수 있으랴. 그 막스함은 내가 도복을 벗은 후에라도 영원히 식지 않으리라.

봄을 기다리며

林

濂

K兄

선인장 화분을 창걸으로 옮기며 또 하나의 겨울과 작별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겨울과의 작별은 늘 막막한 회한과 뒤섞인 실례임으로 시작되지요.

겨울의 한 가운데에서 있었을 때, K兄! 나는 흰 입김을 창에 내뿜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 절실한 생명의 의미 때문에 고독했었습니다. 실상 누구나 의롭고 누구나 고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새삼 확인할 일도 아닐 듯 싶은데, 차단된 방안에 작은 선인장 하나를 키우며 무거운 커튼 사이로 햇빛을 탐내면서, 나는 잠시 정지되어있는 불모의 시간에 숨이 막혔었지요.

머나보낸다는 것은 그런 모양입니다. 작은 미립자처럼 아직도 나의 감각 속에 남아 숨쉬는 이야기와 정(情)이 때때로 무거운 슬픔으로 가슴 가운데로 내려앉고 내려앉고는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상(地上)의 어디에서도 만나질 수 없는 이름과 얼굴입니다. 한송이의 풀꽃이나 잡초로 다시 피면 모를까, 떠난 그의 향기가 흩날릴 날을 나는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K兄.

그의 죽음을 나는 겨울동안 마시고 있었읍니다. 선인장의 푸른 색깔과 함께 하나의 인연과도 절연할 준비를 했습니다. 생이라는 것이 결국 순간으로 물거품화된다고 해도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는 내 시간들을 위해 나는 희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매일 반복되는 절망과 희망이었습니다. 절망은 손쉽게 닥아오고 희망은 힘겹게 얻어지는 것이 슬픔이었습니다.

기억은 억센 손으로 내 의식을 붙잡고 놓아주

지 않았읍니다.

K兄.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얼마나 유쾌한 아이였읍니까? 맑고 막스하고 지순하고 밝지 않았읍니까? 그와 한잔의 차를 마시고, 우울한 차이콥스키를 들을 때라도 우리는 삶은 참 살맛난 가치가 있다고 느끼곤 했지 않았읍니까 그 아이는 희망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읍니다. 날(日)과 시간(時間)을 색채가 고운 모사로 무늬놓는 미술사같은 아이였읍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 아이를 사랑했었지요.

고단한 일상(日常)에서 그 아이결정으로 닦아와선 말없이 쉬고는 했었읍니다.

K兄.

그 아이의 기억은 오히려 매일매일 새롭고 확실해지지만 합니다. 그 아이가 남긴 웃음을 나는 가슴이 아파서 안아 줄수도 없읍니다. 그리고 더 어둡고 무겁게 「죽음」은 나를 침해하기 시작했지요. 의욕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나는 모든 의욕을 잃고 있었읍니다. 햇빛이 늘 변함없이 뜰에 내려앉는다는 사실도 참을 수 없었읍니다. 그가 한 낫날에 보는 그와 가던 길, 찻집, 산, 극장, 선술집을 나는 다시 갈 수 없었읍니다. 쓸쓸한 죽음과는 아랑곳없이 숨쉬는 도시가 나는 밟기까지 하더군요. 참 우스운 처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쉼티멘탈이라고 웃어넘기실지도 모르지요.

K兄.

겨울은 일센티 자란 선인장과 함께 훌쩍 파묻힐 예정인 모양입니다. 춥고 긴 터널같은 겨울의 어둠속에서도辟죽히 자라나는 선인장이 참 매경합니다. 꽃망울이 터질 직전이기때 햇빛갈드는 창으로 옮겨놓고 있지요. 문득 이런 생

작을 합니다. 극도의 nihil리즘에 빠진다는 것.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도피일 뿐이라구요. 누구나 죽음앞에선 절망앞에선 한번쯤 짓게되는 감정의 기복이지만 철저히 방황하는 날을 끝내면서 극복할만한 힘을 저장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허무를 확인하면 할 수록 더 깊은 어둠에 잠길 뿐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내 기억의 수첩 속에 예쁜 글씨로 적어 두고 이쯤에서 덮어야 좋을 듯 합니다.

철저히 방황했던 거울을 끝내고 이제 철저히

살아보는 봄을 맞아도 좋겠지요?

거리거리에서 꽃처럼 선연히 피어나는 그아이의 기억을 만나면 안녕! 인사라도 나누고 아주 먼날의 해후를 기약할 생각입니다.

K兄.

최소한의 안식과 평화를 위해 스스로 비탈에선 나무처럼 뿌리를 내릴 우리의 날들 위에 맑고 찬빛의 증류수를 붓습니다.

제법 따뜻한 햇살입니다. 꽃씨를 꺼내도 좋을까요? 건강하세요.



음 직 임

이 형 삼
(대구 대구중학교 1년)

출지어 선 눈들
 눈들 속에 불이 켜진다.
 하나 두울 세엿
 주먹엔 하늘이 담기고
 두 다리엔 흙이 담긴다.
 나무처럼 선 사람들
 하얀 도복이 펠릭이고
 눈에 있는 불꽃은 높이 타오른다
 정열, 용기, 힘
 날아 오르는 새
 막아서는 방패
 날쌌 몸짓
 대한(大韓)의 기백이 넘쳐 오른다.
 바르고 침착한 하나 두울 세엿
 움직임에서
 나는
 참된 美를 다시 배운다.

수련생과 사범

李 埴 傑
(慶熙大學校)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가 스포츠화됨에 따라서 많은 국제경기의 유치, 사범의 파견, 해외홍보 등으로 세계에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국가적 안목에서도 많은 이득을 가져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월남전에서 모든 한국사람들이 태권도에 능숙한 줄로 아는 월남국민들이 “따이한”이라는 부름과 함께 벽돌을 내민다는 일화가 생길 정도로…….

이토록 서슴없이 내세울 수 있는 운동이기에 많은 수련생이 생기고 또한 지도하는 사범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얘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각 개인 수련생이 사범을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나 역시 수련생임을 감안할 때 평소애 느껴온 사범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범이라 함은 내에게 자기의 실력과 인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범으로서의 확실한 자질이 인정된 사람을 사범으로 승격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뒤로 미루면서 우리 수련생과 함께 생활하고 호호하는 많은 사범님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으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스승이라기 보다 형, 아버지처럼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마음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도 모두 사범님의 헌신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사람은 누구나가 스승이 있을 것이요, 사범의 중요성을 알 것입니다. 좋은 위치에 서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뒷받침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 선수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사회의 냉엄한 반응에는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수의 실력이 첫번째 목표지만 아울러 병행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실력 위주의 수련으로 수련생들로 하여금 반발감을 주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 역시 자칫 운동하는 길을 걸으며 성격이 삐뚤어 지는 경우를 염려하지요. 지나친 훈련으로 몸과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낄때 대부분의 경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훈련과 함께 항상 사범님들의 뜻깊은 배려와 친절이 어린 수련생들의 정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 봅니다. 또한 선수들 양성시킬 때에는 힘드시겠지만 선수의 개인 성격이라든가 환경·열의도 등을 참작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좀더 열심히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막상 사범님에게 바라는 글을 쓰고는 있지만 얼마나 받아들여 주시느냐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꼭 위에 적은 사항뿐 아니라도 수련생과 생활하시는데 필요하시다면 고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련생과 사범이 혼연일체가 되어 운동에 임한다면 아주 큰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련생의 제안을 사범이 받아들이고, 사범의 지침을 따라간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가령, 사범과 수련생이 합심하여 겨루기의 연구동작이라든가 품세의 진행과정 등에 대한 토론

과 연구로 보다 발전된 태권도를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가 세계에 널리 퍼짐에 따라 많은 기술의 향상과 다양성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국제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선수의 실

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개발 또한 완전한 스포츠로서의 빈틈없는 게임 룰 진행 방식들이 연구를 요하게 됩니다. 수련생과 사범이 연구에 직접 참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합니다.

석 별 의 情

김 영 태

우리 인간은 이별을 아쉬워 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헤어진다고 합니다만, 순간의 이별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 은사님으로, 태권도의 스승님으로 맺어진 강홍순 관장님과 우리들의 사연을 미흡한 글로나마 몇자 적어 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전남 해남. 이곳의 경찰서 안에 있는 상무관, 이 상무관이 우리의 심신을 수련하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에서는 그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강홍순 관장님의 지도아래 1,300여명의 태권도 가족이 배출되었고 현재는 120명의 관원이 열심히 피와 땀으로 7년 동안에 이루어진 도장 전룡을 곳곳이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비도 받지 않은 채 무료봉사로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료봉사로 또한 지덕을 겸한 무도인이 되어 달라고 항상 일깨우쳐 주셨고, 우리에게 열공의식도 붙여 넣어 주시면서 이 나라의 참된 역군이 되도록 북돋워주셨던 관장님은 78년 12월 22일 브라질로 초청되어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오시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떠나시며 우리들에게 상무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부탁했습니다.

관장님께서 그동안 쌓아 놓은 태권도 보급은 국민학교 선생님을으로 구성된 교직원태권도회와 매

년마다 개최되는 전남 경찰국장기 경찰국민학교 태권도 경연대회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동안 하루에 두번씩 하는 운동

동이를 무렵의 킁킁한 이른 새벽과 어둠이 물들어서 깊어가는 밤에 하는 태권도 수련이지만 훌륭한 사범진과 교관단등 많은 인재를 배출해 낸 진통의 도장이 된 우리 상무관 관원과 이곳 지방 유지들은 관장님과과의 이별을 서글퍼 했으며, 한편으로는 격려 했습니다.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 수많은 야의 수련회를 가지고 서산대사 유물과 경치가 좋은 대룡사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울돌목과, 해수욕장 등을 다니면서, 민족의 일을 배우고, 자연보호 캠페인과 야의수련을 하던 일이 이제는 추억으로 되어버렸지만, 우리 전 관원은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태권도 중추국 무도인답게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태권도 정신을 전관원들의 흥중에 새기면서, 피와 땀으로 노력 할 것입니다.

다만 타국으로 떠나간 강홍순 관장님의 앞날에 축복이 있길 모두 한마음으로 빌면서, 전국에 아니 온 세계의 태권도인과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이곳지방 유지들과 경찰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기미런 새해에는 모두에게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개 이야기

朴 永 暎

지난 여름에 나는 시골에 있는 삼촌댁에 내려가 지냈다. 여름이란 내겐 가장 짜증스런 계절일 뿐으로 자연 보내는 하루하루가 권태롭고 무료해서 다만 한껏 신경질이 나고 심심할 뿐이었다. 삼촌께서 사시는 곳은 내게는 완전히 타향(비록 전에도 몇번 왔었다 하더라도) 이므로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므로 나의 일과라는 것은 한정지어져 있었고, 항상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귀찮았다. 보통은 독서로 소일했으나 여름날 파열 낮잠을 잔 시간과 책을 읽은 시간 중 어느게 더 긴지 모르겠다. 삼촌께서 쉬시는 때는 가장 유희해 보낼 수 있는 때로 바독을 썼다.

여의에는 시냇가에 나가 어항을 놓고 고기를 잡거나 좀 떨어진 도시에 가 극장 구경을 했다. 이도저도 따분하면 자전거를 타고 아무거나 쏘다녔다. 그렇잖아도 무슨 일이든지 실증을 잘 느끼는 내가 이렇게 단조로운 생활에 하등 재미있을 턱이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방향이 어서 끝나기만 고대하면서 항상 신경만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삼촌께서 세는 주인 댁에서 개를 한마리 기르고 있었다. 몸은 온통 흑철을 한 듯이 시커멓고 흰 부분이라곤 전혀 없었다. 게다가 몸집이 몹시 작아서 볼품없는 압케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발발이(스피츠)라고 했으나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토종견도 아니고 무슨 종류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 개가 사냥기가 또 이를테 없어서, 풀어 놓기만 하면 아무 사람이고간에 물어 놓기가 일수였다. 이렇게 성질이 못됐으므로 늑은 마땅히 시체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주거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늑은 개줄에 꼭 매서는 그의 집과 함께 빈 돼지우리 속으로 유계되었다. 나는 심심하던 차에 이놈이나 사귀어 볼까하고 먹은 것을 몇번 차입해 준 결과 드디어 접근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나만 보면 사납게 왕왕거리던 늑이 점점 나를 보면 아주 반가와 했다.

마지코 보던 늑은 나보다도 몇 갑절이나 더 따분하고 심심할 것이 뻔했다. 하여 나는 늑에 대한 동정심에서 자주 늑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이력저력 나는 늑과 정이 들었다.

내가 늑과 친한지 얼마 후에 늑은 발정기가 왔다. 초밤이면 그 돼지우리 속에서 갹갹거리며 異性을 찾는 것이 참 보기 안됐다. 그러나 늑은 지은 죄가 크므로 그 교도소 생활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나는 늑의 사정이 몹시 딱하게 여겨져서 주인 아주머니 모르게 슬며시 몇번이나 개줄을 풀어줬다. 그런 날 밤에 늑은 으레 의박을 했다.

그런데 나와 늑에게는 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늘 늑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요 늑을 팔고, 다른 개를 하나 나와야겠어」하던 주인 아주머니, 그 작은 늑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하니 그때는 마침 伏中이라 드디어 늑을 아예 잡아 먹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끔찍한 모사를 성사시키는 때에는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으니, 개백정을 팔을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마 삼촌께서 능히 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모양으로 삼촌께 청탁을 했지만은 보기좋게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런 것이 삼촌의 외양은 좀 거칠게 생겼으나 마음은 착한 분이기 때문이다. 주인 아주머

니의 바깥 양반은 아예 그런 일은 못하실 분이
고 그렇다고 동네 사람 중에 누구를 개백정을
시키자니 일을 치룬 후에 머리 부분과 내장은
개백정 일한 사람의 차지라니까 주인 아주머니
도 그건 참 안되겠다고 판단했다. 그 작은 놈의
머리와 내장을 취버리면 먹을 것이 무어 있느
냐는 것이었다. 손수 기르던 개를 잡아먹다니주
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다면 오히려 주인 아주머니
가 돼지우리 속으로……

각설하고 개백정 일을 자원한, 주인 아주머니
가 볼 때는 참으로 안성맞춤격인 사람이 나타났
으니, 그건 바로 나왔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같은
것은 생각도 않던 차에 내가 한다고 하자 몹시
의외라는 듯이 놀라더니——내가 놈과 친한
것을 모르는바 아니니까——몹시 좋아하며 오늘
이라도 잠이 치우란다. 나는 내일 하겠다고 쾌
히 대답을 했다.

그러면 나는 어찌하여 놈과의 정교 있어버리
고 非理를 서슴없이 저지르고자 했던가? 그 곡
절은 대충 이러하다. 우선 나는 참으로 심심하
니까 무엇 놀랄만한 일이라도 없을까 하던 판이
니까 놈을 해치우는 일을 스스로 함으로써 양심
의 가책이라도 느껴 그 괴로움으로 덜 심심하지
않겠는가 여겼다. 또한 여지껏 개구리보다 큰
생명체는 죽어 보지 못한 내가 과연 놈을 죽일
수 있을만큼 냉정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실현해 보고도 싶었다. 마지막 하나의 이유는
내 덕택으로 몇밤을 외박하더니만 마침내 變人
이 아닌 變犬이 하나 생겨서 그놈의 애견이 아
주 돼지우리 속에서 같이 동거생활을 하면서 나
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더럽기도 했다.

이튿날 주인 아주머니는 어떻게 죽이려고 하
냐면서 絞首刑에 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
다. 나는 그러면 고기 맛이 좋지 않은 법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도끼로 놈의 이마를 쳐서 간단히
해치우겠노라하고 우겼다. 내가 그렇도록 잔인한
방법을 주장했던 것은 그때 날이 너무 무더워서
내가 히스테리처럼일만큼 신경이 극도로 예민했었
고, 또 차제에 나는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할 수

있는 인간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했던 탓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시냇가에 나가서 놈을
도끼로 처치하겠다는 것, 놈을 처치한 뒤에는
잘 구워서 脚까지 깨끗하게 떠물어내 줘야나 장
작을 좀 달라는 것, 모든 일은 나 혼자서 할테니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는 것등을 주인 아주머니
에게 주지시켰다. 주인 아주머니는 금세 질뽀미
를 몇단 구해왔다. 나는 짚을 시냇가에 이미 물
색해 논 적당한 장소로 갖다 놓았다. 다음은 놈
을 끌어내서, 굳이 따라오고 싶어하는 주인 아
주머니를 오지 말도록 당부하여 한 손에는 도끼
를 들고 한 손에는 개줄을 끌면서 놈의 처형 장
소에 이르렀다. 개잡는 것은 전에도 여러번 왔
으므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막상 놈의 머리
를 찍으려니까 차마 못하겠다. 그래서 내리치면
되지 하고 다시 도끼를 쳐들었다. 역시 못하겠
다. 손은 다시 힘없이 내려졌다. 이번에는 기필
코 놈을 찍어버리리라 모질게 마음먹고 세번째
도끼를 쳐들었다. 순간 아하 놈을 봐라. 움직이
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진 그놈도 사태를
알아차렸는지 꿈공거리며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그 음울하고 슬픈 눈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미 게임의 승부는 나 있었다.
나는 애초부터 놈을 죽이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만 돌발적인 감정의 우연성
만을 믿고 여지껏 허세를 부렸던 것이다. 나는
필경 놈에게 굴복 당할 줄을 알면서 놈에게 도
전했을 뿐이다. 나는 안심하라고 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모든 것을 단념했다. 주인 아주
머니에게 가서 「아주머니 난 이 개 못 잡겠어요」
하고 「아니 왜?」하며 어안이 병병해 하는 그분
을 뒤로 하고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몇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

다음날 나는 학교에 가봐야한다고 삼촌께 핑
계를 대고는 서울로 와 버렸다.

며칠 전에 삼촌댁에 내려 갔었다가 보니 놈은
내가 처치하지 못한 뒤로 죽을 운명은 면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무사히 보존하고 있음은 물론 두
개의 새로운 생명을 더 거느리고 있었다. 놈은
나를 보자 생명의 은인도 그새 있어버리고 오로

지 자신의 생명을 말할하고자 했던 못된 자로만 여기고 있는 듯 눈을 부라리며 왕왕 거렸다. 나는 늪 물때 갓 태어난 새 생명 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하마터면 그들 어미의 처형장이 될 뻔했던 곳에 그들을 내려 놓았다. 어

미 보다는 훨씬 귀여웠다. 나는 두 마리 캣빛강아지가 귀엽게 뛰노는 모습과 그들의 맑은 눈을 쳐다보며 따사로운 햇볕아래 한참동안 앉아 있었다.

(詩)

바람은 멈추고

홍 준 표

바람을 바람이게 하고
나무를 나무이게 하는
그냥 한번 불러주는 것이 아님은

부르면
불러준 만큼 다가와
모든 아픔이 하얗게 가라앉는 그대
깊은 눈매에서 바람은 멈춘다.

가꾸면

가꾸어준 만큼 자라나
모든 아픔이 하얗게 가라앉는 그대
깊은 눈매에서 나무는 뿌리를 내린다.

아침새로 날아올라
밤피리로 그 하늘에 묻혀도
벌거벗은 가슴으로 돌아올
메아리는 없는 것.
떠나가는 몇 사람의 가벼운 눈짓
속에는 처음으로 없이 없는 것.

떠나는 법을 알기에
가장 큰 하늘과 만나는 어귀에서
바람은 멈추고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 전번호(27, 28 합번호) 독자문예란에 詩를 투고 해주신 분. 김준호→조준호로 정정합니다.

□ 편집 후기

◇……지난 겨울은 참으로 변덕스러웠다. 햇빛이 밝아도 마음은 춥고, 바람은 잠자도 가슴께는 스산했다.

좀더……, 좀더……, 하면서 한편의 책을 꾸미는데 많이 방황했다. 태권도인의 모임, 진실한 목소리로 나누는 言語들이 모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고된 원고는 적고, 날씨는 춥고, 태권도인들도 모두 동계훈련 중이었다. 社會生活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성실이라고 배웠는데 아무래도 부끄러웠던 것 같다.

많은 태권도인들의 참다운 교양지이며, 도움으로 꾸며지는 「태권도」誌와 함께 태권도의 발전과 나아가 태권도가족의 발전을 바랄 뿐이다.

겨울도 지났으므로 이제는 커피 한잔을 마시는 맛도 새롭고 상쾌해질 것이다.

도움을 주신 주위의 여러분들께 감사률……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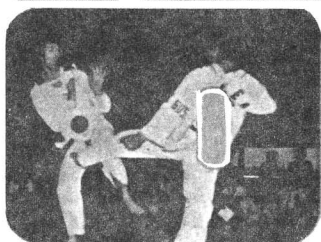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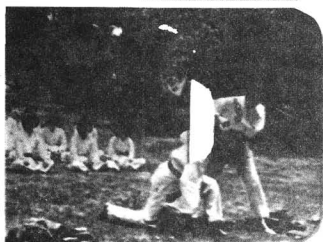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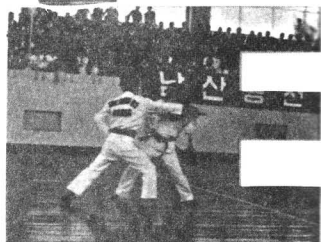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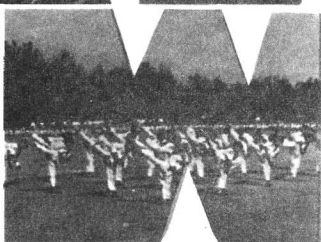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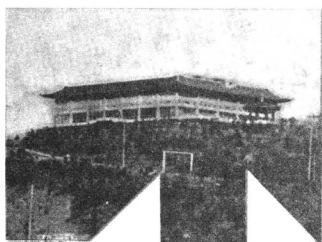
**PRE-WORLD GAMES INVIT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프레월드게임태권도대회

**1978
6 30~7 2**

TAEKWONDO IN THE WORLD!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78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The 1978 General Meeting of National Deleg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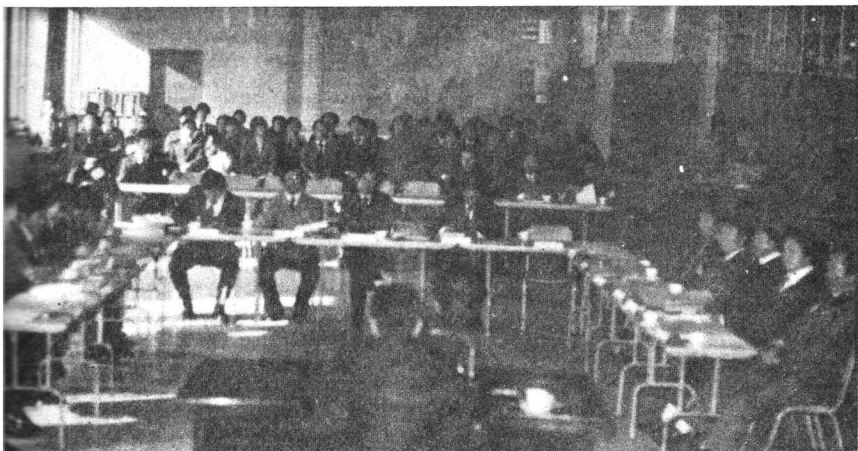
회의를 주재하는 김운용 회장의 개회사 광경
 Opening Address by Dr. Un Yong KIM,
 President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78년도 대의원 정기총회장 광경(1978년 12월 28일 대한체육회강당)

1978 Annual Conference of National Delegates of the Korea Taekwondo

Conference was held at K.A.S Auditorium on December 28, 1978



회의에 참석한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들의 모습
 Representative from provincial chapter at the meeting

고익조(제주) 정병규(부산) 문현상(전남) 허용(전북)

◀ 우로부터 이남석(중앙) 이승완(중앙) 이금홍(중앙)
 정찬모(대학연맹) 노상석(중고연맹) 주상일(국교연맹)



▶ 최규열(경북) 박창락(충남) 김웅(충북) 고봉준(강원) 유병관(경기) 홍중수(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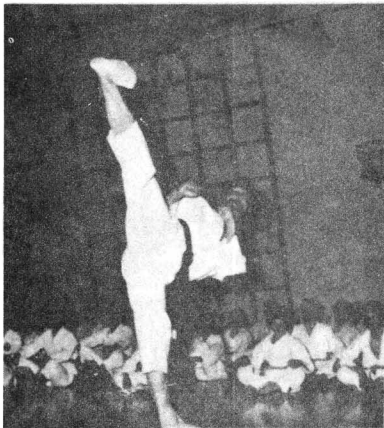




가나 공과관 라틴도 수련실의 모습
Scenes of Taekwondo training
Ghana

▲ 제 2회 중동 태권도 대회를 마치고
<우승자들의 기념촬영>

Winners of the Second Middle East Taekwondo Championships.



◀ 오지리의 라테크시에서 수련생에게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김정관사범

Instructor chong kwan kim of Austria gives his trainers daily lesson at his gy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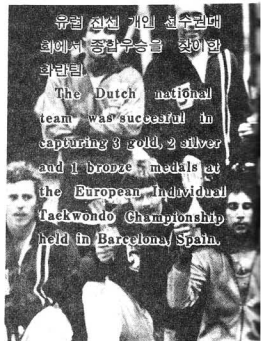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개최된 김운용 세계태권도 연맹 총재컵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메델렌시팀

Medellin city team headed by Young seek kim pose around the championship trophy after they win the Ist Un Yong KIM's Cup Colombia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Bogota

▼ k wondo championship held in Bogota



TAEKW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荷兰팀

The Dutch national team was successful in capturing 3 gold, 2 silver and 1 bronze medals at the European Individual Taekwondo Championship held in Barcelona, Spain.



이범석 주인도대사가 인도 VP주장관과 만나 인도 ▲
내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Korean Ambassador in India Beom Seok Lee (left) shakes hands with the chief Minister of V.P. of India Rm Naresh yadav where the Ambassador promise every possible assistance for the promotion Taekwondo in India.

미국의 최단규 사범이 문하생 21명을 대동하고 국
기원으로 김운홍 총재를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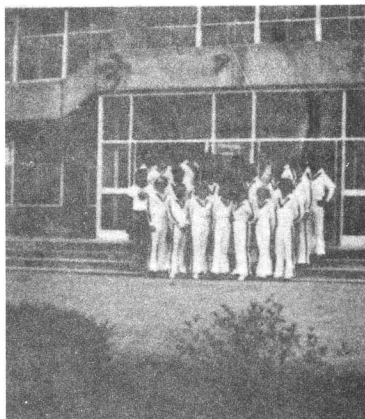
Instructor Dan Kyu Choi and his students, residing in U.S.A visited WTF president KIM at Kukkiwon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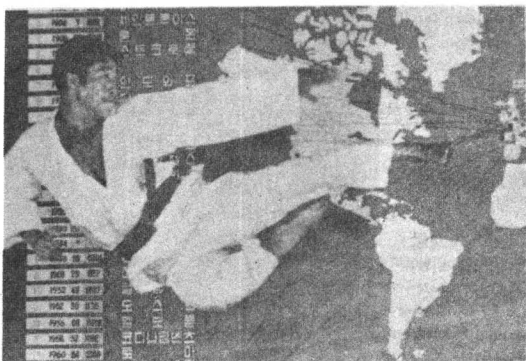
도미니카의 상토 도밍고시장 고문인 후랑·리아도박
사(좌단)일행 국기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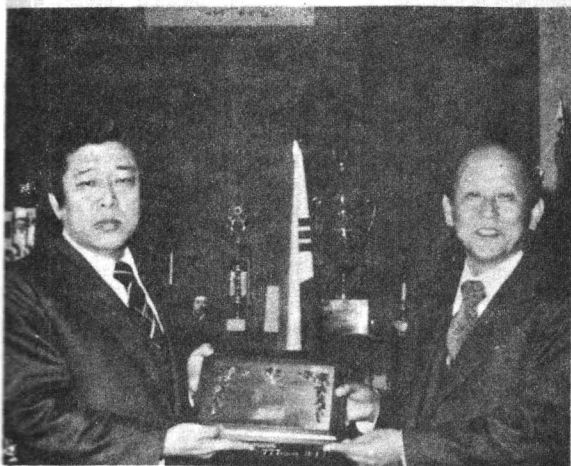
Dr. Juan Liado, Advisor for Santo Domingo mayor of Dominica, and his party pay a courtesy call to the Kukkiwon ▼





발차기의 여러가지
Various forms of foot kicking





국제 라이온리듬 봉사활동을 통하여 태권도 저변 확대에 공헌한 연세라이온스클럽 한옥신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김운용회장

Mr. Hahn Ok Shin, president of Yonsei Lions Club receives Appreciation plaque

주한 미2사단 초청 만찬회 광경

The dinner was given in honor of 2nd U.S Infantry Division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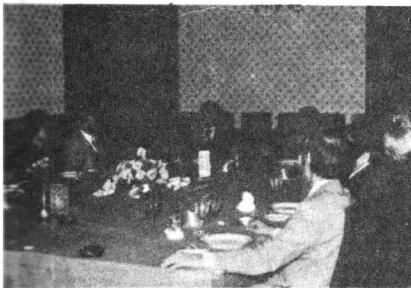
김운용 회장과 담소하는 주한 미2사단장부처

President KIM with Major General & Mrs. David E. Grange, Jr, Commanding General of 2nd U.S Infantry Division in Korea.



주한 미2사단 참모진들과 담소하는 본회 이사님들

President KIM together with K.T.A officials talks with staffs of 2nd U.S Infantry Division in Korea.





이태리 공화국의 공로훈장을 마리오·크레마 주한 이태리대사가 이태리공화국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Italian Ambassador in Korea, Mario Crema confers upon W.T.F. President Un Yong KIM, the decoration of "Commander of the Order of Merit of the Italian Republic"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Italian Re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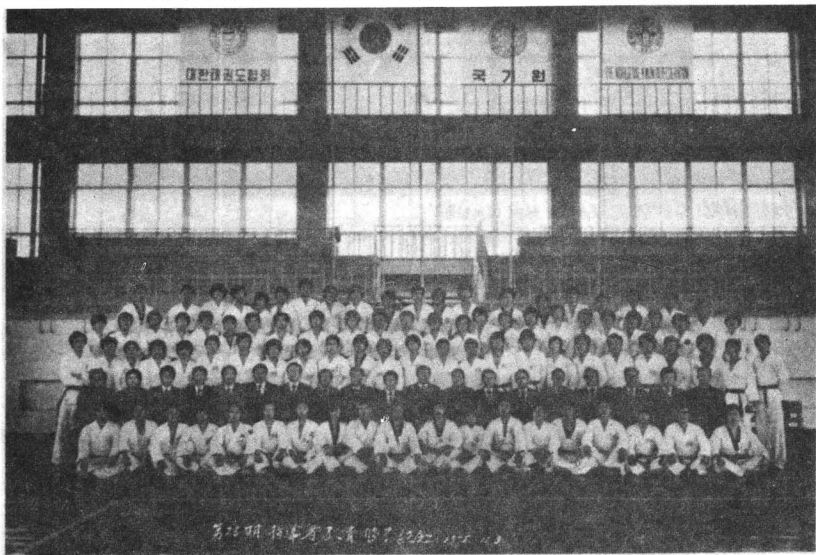
영국무술연맹 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유럽공수도 연맹 사무총장이 국기원으로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예방

President KIM talks with Mr. A. Rees, president of the Martial Arts Commission of the United Kingdom and Mr. Paul Hoglund, Secretary General of European karatedo union at the kukkiwon.



제25기 지도자 교육 수료자 기념촬영.

Graduation Ceremony of the 25th Instructors training course



동지명 報 第 五 卷 第 一 號 二 〇 一 〇 年 一 月 一 日